
태고의 숨결 느끼는 하롱베이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제3331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9일>

코스피	2034.16	(−8.35)
코스닥	690.63	(−2.90)
금리(국고채 3년)	1.64	(+0.01)
환율(원·달러)	1144.50	(+13.00)

삼성전자 자사주매입·중간배당 도입… 27조 투자

이젠 주주가치 경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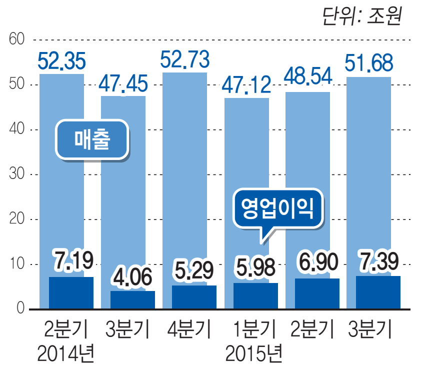
이재용 부회장 통 큰 선택

11조3000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투자자 '사자' 화답… 장중 6% 급등

경영효율화 전력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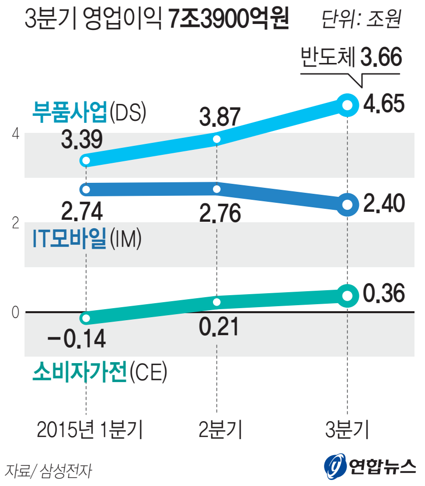
삼성SDS 등 계열사 추가합병설에
IR그룹장 "매입 자사주로 합병 안해"
조직 재정비 등 기초체력 다지기 집중

삼성전자 실적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전자 부문별 영업이익



자료/ 삼성전자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주와 동행에 나섰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분기 배당 추진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8면>

삼성전자는 11조3000억원의 대규모 자사주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식을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주가도 화답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6% 이상 급등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까지 8거래일째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다. 주주친화 정책에 투자자들이 '사자'로 화답한 것이다. 이런 반응은 자사주 취득 결정이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가 경영효율화에 나설 것이란 기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 **이재용의 선택, '주주가 곧 삼성'**

삼성은 이날 실적발표에서 3~4차례에 걸쳐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다. 사상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애플·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비해 배당성향 등 주주친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계획 발표를 통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투자와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주주친화정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과감한 결단을 내림으로써 전격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1회차 자사주 매입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결의하고 10월 30일부터 3개월간 보통주 223만주와 우선주 124만주를 매입할 예정이다.

1회차 매입에서 우선주 비중을 35%로 하는 배경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으로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에 비해 22%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우선주 매입 비중을 높여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에 비해 10% 이상 낮을 경우 우선주 매입 비중을 높여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소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사주 소각으로 향후 주당 배당금의 증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주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향후 3년간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연간 발생하는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30~50%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주주환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 중 설비투자분을 제외하고 남는 재원의 최대 절반까지를 주주환원에 쓰겠다는 의미다.

특히 앞으로 3년간 배당에 중점을 두고 주주환원을 하되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할 예정이다.

올해 배당은 내년 1월 이사회 결의 후 발표될 예정이며 2016년부터는 분기배당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미래성장을 위한 기술 리더십과 안정적 재무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시설투자와 120억 달러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행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와 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현금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사업성장뿐만 아니라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재용 부회장 다음 행보는 '경영효율화'**

"삼성전자가 주주친화 정책에 인색하고 주가 부양의지가 없다"는 시장의 우려를 단번에 날려버렸다는 게 시장 평가다. 지금까지 일부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지분(3.38%)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삼성쪽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방치할 것이라는 분석을 했지만, 이와는 확연히 다른 것.

투자와 시장의 관심은 이 부회장의 다음 행보다. 현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분할과 합병,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등 계열사 간 추가 합병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단기간의 합병 가능성은 제한적이고다. 이 부회장이 삼성 그룹 내 비주력계열사 매각이나 사업부 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과 같은 경영효율화에 힘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전자 IR그룹장인 이명진 전무는 기존에 매입한 자사주를 삼성SDS와의 합병에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현재 삼성SDS와의 합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2015년에 시설투자비로 27조원(전년 대비 14% 증가)을 쏟아 붓기로 한 것도 사업구조와 경영효율화 전략의 하나로 평가된다. 3·4분기까지 누적된 투자액은 19조2000억원 가량이다.

한국투자증권 윤태호 연구원은 "외부적으로는 주주친화정책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투자자 지지를 이끌어내고, 내부적으로는 비주력 사업 분할과 매각, 구조조정과 인력재배치 이후 조직 재정비, 부실요인 선반영 등 기초체력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배구조 개편은 오너일가를 중심으로 한 지분 정리 과정이다. 하지만 자원 재분배라는 점에서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과 맞닿아 있다.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실용주의 경영을 앞세워 한화와의 빅딜, 중복사업 매각과 분리, 비운영자산(부동산 등) 매각에 나서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

아베 만나는 朴 대통령 동북아 외교 교착 뚫는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가질 첫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과 더불어 외교적 교착 상태에 빠진 동북아 정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9일 칼럼을 통해 "지난 3년간 한국과 일본은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 관계였지만 마침내 양국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며 "북한 핵무기 개발 등 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 난망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내달 취임 첫 정상회담 성사
외신 "양국 화해 긍정 전망"

이어 "이달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중국이 어길 경우 한국이 목소리를 내 주길 기대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 국민은 박대통령의 중국 경사(傾斜)에 대한 은근한 질책으로 풀이했지만 박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동맹이 변함 없이 양호한 상태임을 보여줬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이 같은 상황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가까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피해왔지만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그에 대한 보이콧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상황의 이면에 있는 한 가지 요인은 경제다. 실제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는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동북아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우발적인 충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안보 긴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한일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Get 226 trillion won" a war without gunfire among banks.

Where would the owners of a bank account(money market deposit account) with 226 trillion won in it move to?

From the 30th, "The bank account transfer system", which enables clients to change their main bank easily, will go into effect. So far, the clients of bank account have been like tamed rabbits because they cannot run away once they are caught.

Speaking as clients, they have not even thought about changing their main banks to better ones due to all the different sort of accompanying constraints such as automatic transfer. However, the bank account transfer system now enables clients to transfer their bank accounts to other banks as well as the automatic transfer account with a click of a mouse.

Thus, the clients now have a chance to consider about the services that banks provide. Banks are devoting their full attention to taking clients away from other banks and securing the existing clients.

The automatic transfer account could easily be changed on integrated service management(payinfo) website which is run by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Until now, bank clients have had to contact all those telecommunication, insurance and credit card companies in order to change their automatic transfer accounts. Now those hassles are gone all at the same time.

"226조 잡아라" 은행, 총성 없는 전쟁

'226조원(수시입출금 규모)'이 들어 있는 통장 주인의 마음은 어디로 움직일까.

30일부터 주거래 은행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은행 통장 고객은 시중은행의 '집토끼'와 같았다. 한번 잡아두면 쉽게 도망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선 계좌에 딸린 각종 자동이체 등 제약 때문에 조건이 좋은 다른 은행으로 통장을 바꿀 엄두를 못 냈다. 하지만 계좌이동제로 클릭 몇 번에 자동이체와 함께 계좌를 옮길 수 있다. 통장 주인 입장에선 그동안 받던 거래은행의 서비스를 따져 볼 기회가 생긴 셈.

은행들은 고객 빼앗기와 지키기 경쟁에 올인하고 있다.

자동이체 계좌는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바꿀수 있다.

지금까지 은행 고객이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려면 통신·보험·카드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처리해야 했다. 이런 번거러움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미국과 중국 간 남중국해 인공섬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정상들이 **중국**을 연달아 찾고 있다. 네덜란드의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이 떠나자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곧 중국을 찾는다. 이들 모두의 관심사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다.

▲ 미국이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성명에는 금리인상 메시지가 곳곳에 묻어났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인 약 37억 명 이상이 입 주변이 헐거나 물집이 생기는 헤르페스(제1형 단순포진 바이러스, HSV-1)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치·사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으나 여야 의원들이 역사 교과서에 대한 예비비 편성을 놓고 또 충돌하는 등 표류하고 있다.

▲ **국방부**가 육·해·공군을 통틀어 장군 40여 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 각 군 본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제계의 요청으로 마주앉은 자리에서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인식차를 재확인했다.

▲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는 29일 내년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성큼 다가온 스키장의 겨울 29일 강원 설악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7.1도까지 떨어지는 등 연이틀 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평창군 용평리조트가 새벽부터 옐로와 레드 슬로프에 인공눈을 뿌리며 스키장 개장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식품전문가들의 진화에도 불구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 지정하면서 촉발된 가공육 판매 감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의 햄·소시지 매출 감소폭이 27일 전주대비 10%대에서 28일 30%이상으로 커졌다.

▲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7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거뒀다. 분기 영업익 7조원 돌파는 5분기 만이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DS)부문은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상승세를 견인했다.

▲ 올 3분기 성적표를 받아든 **LG전자**가 TV로는 웃었지만 휴대폰 때문에 울었다. LG전자는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4조288억원, 영업이익 294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TV 사업을 담당하는 HE사업본부의 경우 매출 4조 2864억원, 영업이익 370억원을 달성했다. 전분기 대비 약 9% 증가했다. 휴대폰 사업부인 MC사업본부는 매출 3조3774억원, 영업적자 77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과 치열한 시장경쟁을 펼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중국과 미국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현대차는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 미국에서 기술력을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현지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3·4분기 개인카드는 음식점, 법인카드는 공과금 결제에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166조52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의 목적은 한계기업 정리만이 아니며, 생산성 있는 기업은 살리는 것"이라면서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한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 등을 구조조정 3원칙으로 제시했다.

▲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조원 이상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채권시장에서도 4조원 가량의 외국인 투자금이 이탈했다.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면서 추가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증권업계에 최대 매물인 **KDB대우증권 인수전**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DB대우증권 인수전은 앞서 참여의사를 밝힌 KB금융지주, 미래에셋그룹을 포함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측의 방해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재개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보고 요청을 수락할 경우 신 전 부회장쪽에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정구호식 **휠라**가 공개됐다. 휠라코리아는 29일 리뉴얼한 브랜드와 함께 봄 여름시즌 신제품을 공개하고 '젊은 휠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가공육 '발암물질' 직격탄… 연일 매출 급감



WHO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이틀째 햄·소시지 매출이 급감했다. 지난 28일 대형마트의 가공육 매출은 전주대비 30% 이상 줄었다. /뉴시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촉발된 가공육 판매 감소 후폭풍이 거세다. 식품 전문가들이 과다섭취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가공육 소비의 하락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27일 전주 대비 10%대 중반이었던 가공육 매출 감소율은 이틀째인 28일 30%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대형마트에 이어 식자재 유통업체, 외식업체까지 도미노 매출 하락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9일 대형마트업계에 따르면 햄·소시지 등 가공육 매출이 WHO의 발표에 직격탄을 맞았다.

홈플러스는 28일 가공육 매출은 전주 대비 34.9% 줄었고 롯데마트도 33.5%나 감소했다. 가공육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한국육가공협회가 28일 WHO의 연구 과정에서 문제점을 꼬집고 대응에 나섰지만 매출감소를 막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전문가 안전하다 진화나섰지만 매출감소 이어져

가공육 소비 거부 바람이 거세지자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도 한국육가공협회의 WHO 발표 반박에 힘을 보탰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은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공육의 안전성을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가공육 섭취량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백형희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연간 4.4kg가량의 가공육을 섭취하는 한국과 18kg까지 섭취하는 서양인들을 비교했을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1군 발암물질 분류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상희 WHO 식품안전 패널(호서대 임상병리학과 교수)도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가공육만 발암물질이 높고 닭고기, 생선을 비롯한 백색육이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다. 아직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라며 "IARC의 1급 발암물질 지정을 한국인에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의 가공육 섭취량이 반영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후 위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공육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윤재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는 "이번 사건은 가공육을 다량으로 먹는 사람에 대한 경고"라며 "한국 가공육 섭취량에 비해 미국은 10배, 독일은 7배가 많은데 서양인 기준으로 지정된 가공육 1군 발암물질을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인의 경우 적절한 단백질원 공급을 위해 육류 소비를 더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 가공육 매출 추이>

구분	10/27	10/28	Total
햄	-16.3%	-34.0%	-22.7%
소시지	-18.4%	-32.9%	-23.4%
돼지고기	45.9%	50.7%	48.1%
소고기	7.1%	1.2%	4.4%

※기간:2015.10.27~28일 vs 전년동기대비

<홈플러스 가공육 매출 추이>

구분		10/28	10/27~28
햄·소시지(전체)	전년대비	-35.5%	-25%
	전주대비	-34.9%	-23.7%
햄	전년대비	-24.7%	-15%
	전주대비	-34.1%	-24.7%
소시지	전년대비	-43.8%	-33%
	전주대비	-35.9%	-22.9%

대형마트·식자재업체·외식 기업까지 줄줄이 파장
전문가들 "국민 섭취 우려할 만한 수준 아냐" 진화

전문가들은 적당량의 육류 섭취는 필요하다며 과다한 섭취는 지양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실제로 IARC도 소시지, 햄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며 과잉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대형마트 울상, 외식업체도 불똥 튈라

현재까지 대형마트가 가공육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외식업체들도 발암물질로 인한 매출 감소가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제조업자와 유통채널의 매출 감소가 조만간 식자재유통업과 외식업까지 번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마치 육가공식품이 유해물질이라도 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외식업체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적정 권고량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발암물질로 발표한 WHO보고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전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식약처 등의 관할 기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도 이번 사태 진화를 위해 '육가공의 섭취량과 조리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공육 매출이 감소하면서 돼지고기, 소고기 등 신선육 매출은 이틀 연속 상승해 가공육 대체품으로 주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롯데마트의 돼지고기와 소고기 매출은 전주보다 각각 50.7%, 1.2% 증가했다.

/정용기·김성현 기자 yonggi·minus@

롯데, 신격호 업무보고 요구에 '난색'



"SDJ 측에 기밀유출 우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이 최근 14개 계열사 대표 앞으로 '정기보고 촉구의 건'을 전달했지만 롯데그룹이 난색을 표했다.

롯데그룹은 29일 신 총괄회장의 의견을 수용하고 싶지만 롯데와 무관한 관계자(SDJ코퍼레이션 측 인사)에게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롯데그룹 측은 "14개 계열사 대표들은 언제든지 보고할 준비가 돼 있으나 롯데와 전혀 관계가 없고 회사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고를 받거나 보고에 배석하는 경우 회사 기밀사항이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어 보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방해로 계열사 대표들이 총괄회장 보고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기보고 촉구 공문이 발송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계열사 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19일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의 보고가 마지막이다.

/정용기 기자

채권단, 대우조선에 4조2000억 투입

내년까지 부채 500% 이하로 구조조정·민영화도 추진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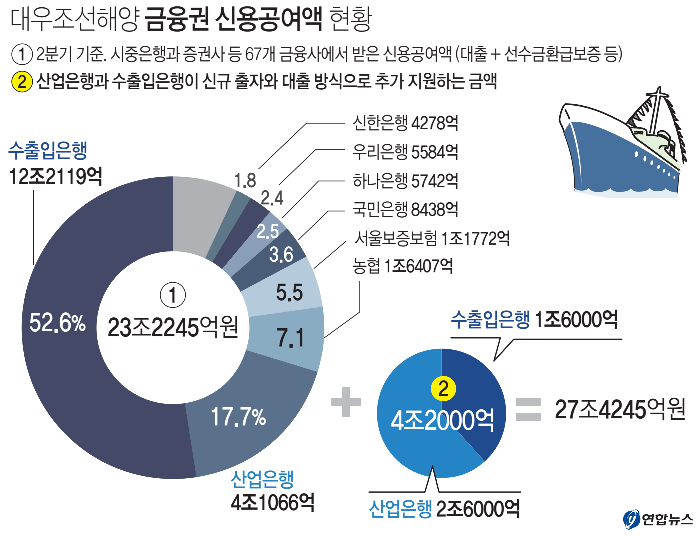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4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단계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도 함께 추진된다. 현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 작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은 29일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수은)과 함께 신규 출자와 대출 방식으로 총 4조20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인 산은이 유동성 지원과 연계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의 방식을 동원해 자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부채비율도 내년 말 50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산은과 수은은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대우조선에 신규 발급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의 90%를 각각 같은 비율로 맡기로 했다.

산은은 다음달 6일까지 채권은행 회의를 열어 대우조선과 경영정상화 협약(MOU)을 체결하고 자금지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은은 "부산·울산·경남의 지역내 총생산 중 10%를 차지하는 대우조선의 위상을 고려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국책은행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정상화 방안을 확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채권단의 지원을 계기로 인력과 조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해양플랜트 인도가 마무리되는 2016년 이후 직영 인력과 사내 외주 인력을 적정 생산 규모에 맞게 축소하고, 수주 규모를 발주량과 선가 수준을 고려해 줄인다.

특히 해양플랜트 비중을 현재 50% 이상에서 40% 수준으로 낮춰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무리한 수주 활동을 막기 위해 견적원가 산출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주의 질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키로 했다.

채권은행들은 신규 수주의 수익성을 검증해 RG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총 1조85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 비핵심 자산을 모두 매각해 7500억원을 조달하고, 향후 3년간 인적쇄신, 경비·자재비 절감, 공정 준수를 통한 지연배상금 축소 등으로 1조1000억원 이상의 손익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수립한 인적 쇄신안에 따라 현직 임원 6명과 비상근 고문 4명을 포함한 23명을 경영악화 책임을 물어 퇴직조치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경영정상화 때까지 임금을 동결하고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채권단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9월 가계대출 6조원 '껑충'

너도나도 빚 내서 집 산다

저금리·주택시장 호황 맞물려 개인사업자 대출도 3조1000억

9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이상 늘었다. 저금리 지속과 주택시장 호황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금리가 쌀 때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내놓은 '9월 말 국내 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1321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540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4000억원이 늘었다. 여기에 주택저당증권(MBS) 유동화금액이 전달보다 8000억원 늘어난 것을 포함하면 9월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유동화 잔액 포함 기준으로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7조7000억원)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증가폭이다.

가계대출은 저금리와 주택거래 호조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9월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다.

9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난 457조3000억원으로 증가폭이 8월(6조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잔액도 증가했다. 9월 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69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7000억원 증가했고, 대기업 대출 잔액은 191조2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이 늘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합한 전체 기업대출 잔액은 750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원 늘어 전월(5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많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체 기업대출 잔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월평균 1조6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올 6월에는 2조9000억원, 9월에는 3조1000억원으로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9월 말 기준 국내은행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6%로 한 달 전(0.76%)보다 0.10%포인트 하락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0.20%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일부 구조조정 기업의 연체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10%포인트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04%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취약업종의 연체율을 보면 건설업이 3.65%, 해상운송업이 1.48%로, 전월과 비교해 각각 0.62%포인트, 0.49%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보다는 0.06%포인트, 작년 같은 달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말 연체율이 전월 말과 전년 동월과 비교해 모두 하락하는 등 개선되고 있다"며 "취약업종 부실화 가능성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현대자동차가 미국 친출 29년만에 1000만대 판매를 달성했다.

현대차, 美선 '싱글' 中선 '한숨'

美-29년 만에 1000만대 판매 고급차 비중 높여 수익성 개선

中-저가 공세 밀려 순위 하락 소형 SUV 출시로 반격 시작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과 치열한 시장경쟁을 펼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중국과 미국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현대차는 GM, 포드 등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즐비한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 미국에서 기술력을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현지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현대차는 1986년 소형 승용차 '엑셀'을 미국 시장에 수출한 이후 29년 만에 누적 판매 1000만대를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자동차 브랜드는 물론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서 현대차가 고객들로부터 꾸준히 선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차의 엑셀은 가격 대비 높은 상품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첫 해 16만8882대를 비롯해 1990년 현지 판매 100만대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놀라게 했다.

현대차는 현지 진출 13년 만인 1999년 누적 판매 200만대를 달성한 후 2002년 300만대, 2005년 400만대를 돌파하며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앨라바마 공장이 준공된 2005년 이후에는 연평균 6%대 성장을 거듭하며 판매에 탄력이 붙었다. 2007년 500만대, 2009년 600만대, 2011년 700만대, 2013년 800만대, 2014년 900만대를 차례로 돌파했다. 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판매 성장을 기록하고 2010년부터 매년 연간 신기록을 달성했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 성장한 57만8190대를 판매해 연간 판매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 진출 이후 총 15개 차종을 선보였다. 현재는 엑센트, 엘란트라, 벨로스터, 쏘나타, 아제라(그랜저), 제네시스 쿠페, 제네시스, 에쿠스, 투싼, 싼타페 등 전 차급에 걸쳐 11개 차종을 판매한다.

최근 현대차는 소형차 위주 제품군에서 벗어나 레저용 차량(RV)과 대형 및 고급차 판매 비중을 높이며 수익성 개선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도 키우고 있다. 2008년 선보인 현대차의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가 '북미국제오토쇼'에서 아시아 대형 차량으로는 최초로 '올해의 차'에 선정된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 같은 브랜드 혁신으로 2000년 5.0%에 불과했던 RV와 대형 차 비중은 26.8%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현지 기업의 저가 공세로 올 상반기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날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중국 내 업체별 자동차 판매 순위에서 현대차(베이징현대)는 5위권 밖으로 밀려나 6위에 그쳤다. 현대차를 끌어내리고 5위에 오른 업체는 중국 토종 기업인 창안자동차다. 현대차가 중국 기업보다 뒤처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중국내 모델별 판매 순위 톱 10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현대차 랑동(아반떼)은 1만9709대로 12위에 그쳤다. 반면 창청의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하발 H6는 3만528대가 팔려 4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소비 변화는 가격적인 측면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배기량 1.6ℓ인 현대차 랑동의 공식가격은 10만5800위안으로 도요타의 코롤라(10만7800위안)와 비슷하지만 치루이 E3(5만2900위안)나 BYD L3(5만4900위안)의 2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도 현지 자동차회사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SUV 라인업을 보완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 전략형 소형 SUV 모델을 출시하는 등 현지 대응에 나서 9월 부터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며 "소형 SUV 등 신차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美 외면한 유럽… 中엔 "워 아이 니"

<사랑해>

유럽 투자유치에 혈안 一帶一路 기대감까지

29일 네덜란드의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이 떠나자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다음달 2~3일 중국을 찾는다. 이들 모두의 관심사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다. 정확히는 중국의 돈을 끌어오는 것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영국만을 콕집어서 방문, 400억 파운드(약 70조 원) 투자를 약속했다. 영국이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니 시 주석이 '전략적으로' 찾았지만 이들은 다르다. 중국의 투자가 아쉬우니 직접 달려가는 것이다.

이들 유럽의 지도자들은 지난달 중국의 항일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불참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군사대국으로 인정받길 원했다. 이를 위해 첨단 전략무기를 선보였지만 유럽 지도자들의 불참으로 빛이 바랬다. 중국은 왕따를 당하는 듯했지만 잠시 뿐이었다. 중국의 진정한 힘은 총이 아니라 돈이었다. 시 주석이 영국에 거금을 뿌리자 유럽정상들의 구애 행렬이 시작됐다. 이들은 중국과 미국 간 첨예한 대결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을 두고 미·중 양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미국 언론 "메르켈 호객행위"

미국 측은 중국이 가진 돈의 힘에 굴복한 우방국들이 고울 리 없다. 이날 미국의 블룸버그는 메르켈 총리의 방중 소식을 전하면서 "유럽국가들이 나라 경제를 위해 시 주석에게 아양을 떠는 가운데 메르켈 총리가 중국으로 가서 독일 산업력의 건재를 확인시키는 호객행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또 올랑드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자마자 달려가는 것은 유럽이 중국에 결혼을 약속하는 또 다른 신호"라고 꼬집었다.

올랑드 대통령은 관광대국답게 유커(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전방위적인 호객행위에 나선다. 유럽 내 중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의 방중에는 마티어스 뮐러 폴크스바겐 신임 최고경영자(CEO)와 조 카이저 지멘스 CEO, 독일증권거래소의 카르스텐 켄게터 CEO가 따라 갔다.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기술명가라는 명성이 무너져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위태로운 상황이다. 가뜩이나 중국 경기 둔화로 자동차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뮐러 CEO의 행보가 어떨지는 불 보듯 뻔하다. 블룸버그의 지적대로 배출가스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멘스는 2분기 중국 판매량과 신규주문이 각각 8%, 2% 줄었다. 카이저 CEO는 "중국시장이 안정되었는가. 이것은 10억 달러가 걸린 질문"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시장 상황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 분명하다. 독일증권거래소는 중국증권거래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성장 멈춘 유럽, 부활 기대

유럽정상들이 구애 경쟁에 나선 데에는 '눈 앞의 돈'만이 이유는 아니다. 더 큰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일대'란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교역로를 말한다. '일로'는 서태평양에서 인도양의 해상 교역로를 가리킨다. 이 교역로들로 이어지는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국가들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가 63%, 경제규모 29%, 교역규모는 23.9%다. 총 80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판 마샬플랜'(전후 미국의 유럽부흥계획)이라고 이름붙일 정도다. 유럽에 중요한 것은 '일대'이다. '일대'로 중국과 연결될 경우 성장이 멈춘 유럽은 새로운 부흥기를 맞게 될 것이란 꿈에 부풀어 있다.

알렉산더르 국왕이 방중 기간 "네덜란드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지지하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AIIB는 중국이 일대일로 추진을 위해 설립했다. 여기에는 영국마저 참여한 상태다.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던 AIIB 반대 운동을 이탈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29일 중국에 도착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과감해진 美 연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져

FT·로이터·블룸버그 등 평가 FOMC '다음 회의' 표현 7년 만 낮은 물가·임금 정체 등 동결 이유



미국이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성명에는 금리인상 메시지가 곳곳에 묻어났다. 낙관론과 비관론을 반복해 '양치기 소녀'(연준 의장인 재닛 옐런(사진)이 여성이라 붙은 표현)라는 오명도 금리 인상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FOMC는 28일(현지시간) 10월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연방기금 금리의 현재 목표치인 0~0.25%가 여전히 적절하다는 판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표치를 올리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회의는 6주 뒤인 12월에 열린다.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특히 7년만에 '다음 회의'라고 명시한 표현이 주목된다.

위원회는 금리 동결의 이유로 2개월 연속 신규고용 증가량이 20만 건을 밑돈 점, 목표치인 2%를 크게 하회하는 낮은 물가, 임금 정체, 국제경제의 약세 등을 들었다. 하지만 지난 회의 이후 성명에서 나온 "최근 있었던 전 세계 경제와 금융상황이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했고, 단기적으로는 물가에 추가적인 하향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은 빠졌다.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외신들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외위험이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경고문구를 빼는 대신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심스러운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행동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한지 결정할 때 완전고용과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를 위한 진전이 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이례적으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임을 분명하다"는 전문가의 관측을 전했다.

/송병형 기자

세계 3분의 2 '헤르페스' 감염

WHO 역학조사 결과 발표

세계보건기구(WHO)는 28일(스위스 시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인 약 37억 명 이상이 입 주변이 헐거나 물집이 생기는 헤르페스(제1형 단순포진 바이러스, HSV-1)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역학조사이다. 2012년이 기준이다.

감염이 쉽게 되고 치료가 어려운 헤르페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HSV-1은 주로 구강 접촉, 제2형인 HSV-2는 성관계 등 피부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 헤르페스가 흔히 성병으로 알려진 것은 제2형 때문이다.

HSV-1은 이번 조사에서 성기 단순 포진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주 대륙, 유럽, 서태평양 등의 15~49세 사이의 인구 1억4000만 명이 이런 방식으로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WHO는 앞서 지난 1월 전 세계적으로 15~49세 인구 4억1700만 명이 HSV-2에 감염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WHO 메를렌 템머맨 생식보건 담당 국장은 "젊은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두 종류의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한 교육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전염돼도 금방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정신건강과 대인관계에 아주 심각하고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청계천 복원 10년, 버들치·참갈겨니 등 정착

4종서 20종으로 증가
도심 소하천 평균의 4배

유량 줄자 유속도 느려져
종·개체수 증가에 긍정적



청계천 복구 10년 만에 서식 어종이 5배 가량 증가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청계천 복구 10년 만에 서식 어종이 5배 가량 증가했다.

29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 의뢰해 청계천 어류 변화상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 전인 2003년에 비해 복원 10년 후인 2014년 어류 종 수가 5배 증가했다.

2003년 5~8월 서울시 조사 결과 3과 4종(붕어·참붕어·밀어·미꾸리)이었던 어류가 2014년 조사에서는 치리, 참마자, 물개, 버들매치 등이 추가된 4과 20종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5~6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도심 소하천에 비해 4배에 가까운 수치로 하천 생태계 종 다양성과 건강성을 뒷받침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유량이 줄어든 이후 낮은 곳에서 서식하는 저서성 어류가 증가하면서 종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했다.

복원 초기 하루에 유지용수 12만톤을 흘려보내던 것을 지난해부터는 청계천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 3분의 1 수준인 4만 톤으로 양을 줄이면서 중류구간의 유속이 완만해지고 다양한 물고기가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청계천 복원 초기 외래 도입종과 붕어 등 관상어들이 많이 확인됐던 것에 비해 현재 버들치, 피라미, 참갈겨니 등 토종 어류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중·하류 구간에 잉어, 붕어 등 대형 어종이 많아 다양한 어류 서식과 하천의 건강도를 위해 대형 어종 개체수 조절이 필요한 만큼 관련 시범 사업을 중앙내수면연구소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청계천 어류 조사뿐 아니라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박사들을 초청해 청계천 생태해설사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 하천 어류의 종류와 특징, 서식 환경 등을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진용 서울시 하천관리과장은 "이번 조사 발표가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계천 어류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예결위 '교과서 자료제출' 공방

野 "야당 무시" vs 與 "생트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으나 여야 의원들은 역사 교과서에 대한 예비비 편성을 놓고 또 충돌하는 등 표류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예비비 편성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데 집중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의 반대 논리를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

회의가 시작된 지 30분 가까이 의사진행 발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여야 의원 사이에 격한 표현이 터져 나오고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반복됐다. 이에 따라 이틀째 예산안 정책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사실상 공회전했으며 교과서 공방이 계속될 경우 자칫 정쟁만 벌이다가 예산안 심사는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야당이 요구한 예비비 자료 제출을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해 "동네 개가 짖어도 이러진 않을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답변을 위해 배석한) 장관님들의 이석(離席)과 관련해 최대한 편의를 봐 드렸지만, 대통령 행사 수행 등을 앞으로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장관이 무단 이석한 부처에 대해선 기본경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자료 제출 문제로 일종의 보복적인 (이석 불허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건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위원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예비비는 선조치 후보고가 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걸 알면서도 계속 (자료 제출을) 주장하는 건 생트집이다.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되려면 스스로 자제하고, 특히 야당 의원의 자제를 당부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처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감정이 격해진 의원들은 상대 당 의원의 발언 도중 끼어들어 고함을 지르거나 반말을 쓰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여야, FTA 시각차 재확인… 재계 발동동

<자유무역협정>

與 "연내 비준" 강조에
野 "보완 필요" 반발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김인호 무역협회장(왼쪽부터). /연합뉴스

재계의 요청으로 마주앉은 자리에서 여야가 한·중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인식차를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연내 비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불법어로조항 등이 빠졌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재계는 "(기업들에게) 한중FTA는 새로운 성장 기회"라며 여야에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29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사랑재에서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중FTA와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계가 여야 원내지도부에 회동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회동에서 집중 거론된 의제는 한·중FTA 비준동의 문제였다. 재계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 상당수가 중국과 교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성장 기회"라며 한·중FTA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지만 여야는 각자 주장에 몰두해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모두 연내 비준된다면 올해에 1차로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한 번 더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으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 없다"면서 올해 안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한·중FTA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피해대책 마련 등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중 FTA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법어로조항, 월경성 황사 대책, 검역주권 등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전체 수출량의 26%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 필요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부실해 보이는 한·중FTA를 국회가 잘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도 이날 5차 회의를 열고 한·중FTA 비준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았다.

강석훈 TF단장은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하려면 한·중FTA가 하루속히 비준돼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자리 1개, 수출 1 달러가 중요한 상황에서 1분 1초가 급하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제주도에서 가장 탐나는 자리인 서귀포 혁신도시와 강정택지지구 사이 –
세계 8대 호텔체인이 드리는 글로벌 호텔의 고수익 투자가치를 잡으십시오
밸류호텔월드와이드 서귀포JS 분양개시
다 드립니다
부대시설 : 실내수영장 / 사우나 / 휘트니스 / 고급컨벤션 /카페 테라스 / 호텔뷔페
Value Hotel Worldwide by Vantage
Seogwipo JS
10년간 안전보장(공증)
10년간 연 15% 수익보장
(대출 50%기준, 이자5%이내 포함)
10년간 대출이자 전액지원
준공 후 100% 환불보장
(5년 후 부터 적용)
서귀포관광미항
서귀포시청 제2청사
헬스케어타운
종합경기장
천지연폭포
서귀포 혁신도시
월드컵경기장
이마트
강정택지지구
중문관광단지
강정 민군 복합미항
年10% 10년간 수익보장
年5% 10년간 이자지급
안전보장 공증
분양가 100% 환불
50% 중도금 무이자
서귀포 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 이전, 연 15% 확정수익 [대출 50% 기준, 5%이내 이자포함], 세계 8대 호텔체인의 운영노하우
제주의 모든 가치를 담은 고수익 호텔–밸류호텔월드와이드 서귀포JS
FUTURE OF ISLAND
위치가 그대로 투자수익으로 이어지는 제주 최고의 자리!
서귀포 혁신도시 앞에 미래가치가 집중됩니다
INVESTMENT OF ISLAND
최대 연 15% 확정수익을 드리는 고수익 호텔!
제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선사합니다
HIGHCLASS SERVICE
세계 8대 호텔그룹의 운영노하우와 서비스!
세계적인 전문 운영·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 약 금 안 내
청약계좌 : 외환은행 630-009732-071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아시아신탁(주)
02) 2097-8850
| 시행사 | (주)진성인터내셔널
| 시공사 | CHEONMA 천마종합건설
| 신탁사 | 아시아신탁
| 운영사 | Value Hotel Worldwide 밸류코리아
| 마케팅사 | (주)세종피엠씨

삼성전자, 5분기만에 '분기영업익' 7조 돌파

반도체·디스플레이, 역대 최고 영업익 내며 실적 견인
社, 부품부문 강화 위해 반도체에만 15조원 설비투자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7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거뒀다. 분기 영업익 7조원 돌파는 5분기 만이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DS)부문은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상승세를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부품 부문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반도체에만 15조원을 포함해 총 27조원의 설비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매출 51조6800억원, 영업이익 7조390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 82.1% 증가한 수치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6.5%, 7.2% 늘었다.

지난 7일 공개한 잠정실적 매출 51조원, 영업이익 7조3000억원을 모두 상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3분기는 주요 통화대비 지속된 원화 약세로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약 8000억원 수준의 긍정적 환영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역시 삼성의 '효자사업'

사업별로 3분기 실적을 보면 반도체 사업은 3분기 매출 12조8200억원, 영업이익 3조6600억원을 달성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11조2900억원), 영업이익(3조4000억원) 모두 늘었다. DDR4, LPDDR4 등 고부가 제품과 고용량 SSD 제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LSI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14나노 파운드리 공급을 개시하면서 실적이 향상됐다.

디스플레이(DP) 사업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의 출시와 중저가 패널의 판매 증가 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가동률 향상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됐다.

스마트폰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IM부문은 갤럭시 노트5, 갤럭시 S6 엣지+, A8, J5 등 신모델을 출시하며 전분기보다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갤럭시 S6 가격조정과 중저가 제품의 판매비중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삼성전자 2014~2015. 3분기 분기별 실적> (단위:조원)

구분		2014 1Q	2014 2Q	2014 3Q	2014 4Q	2014 전체	2015 1Q	2015 2Q	2015 3Q
매출	전사	53.68	52.35	47.45	52.73	206.21	47.12	48.54	51.68
	CE부문	11.32	13.00	11.60	14.27	50.18	10.26	11.20	11.59
	IM부문	32.44	28.45	24.58	26.29	111.76	25.89	26.06	26.61
	DS부문	15.66	16.23	16.29	17.71	65.79	17.10	17.87	20.31
	반도체	9.39	9.78	9.89	10.66	39.73	10.27	11.29	12.82
	DP	6.10	6.33	6.25	7.05	25.73	6.85	6.62	7.49
영업이익	전사	8.49	7.19	4.06	5.29	25.03	5.98	6.90	7.39
	CE부문	0.19	0.77	0.05	0.18	1.18	△0.14	0.21	0.36
	IM부문	6.43	4.42	1.75	1.96	14.56	2.74	2.76	2.40
	DS부문	1.87	2.09	2.33	3.13	9.43	3.39	3.87	4.65
	반도체	1.95	1.86	2.26	2.70	8.78	2.93	3.40	3.66
	DP	△0.08	0.22	0.06	0.47	0.66	0.52	0.54	0.93

※ CE (Consumer Electronics), IM (IT&Mobile Communications), DS (Device Solution)
※ 부문별 매출액은 부문간 내부 매출을 포함하고 있음.

가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CE부문은 TV의 경우 하반기 성수기 진입과 SUHD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로 실적이 개선됐다. 생활가전도 북미 시장 성장 지속과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로 실적이 소폭 개선됐다.

◆"27조원 투자로 기술리더십 유지"

삼성전자는 기존 주력사업과 미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올해 설비투자를 전년보다 약 14% 많은 27조원으로 늘린다. 주로 반도체에 약 15조원, 디스플레이에 약 5조5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투자 증가는 기술 리더십 강화를 통한 사업역량 제고 차원"이라며 "V낸드 등 첨단기술 리더십 강화와 액정표시장치(LCD) 생산라인 효율화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세트 사업과 시스템 LSI의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품사업 성수기 효과 둔화와 환영향 축소 등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 둔화를 예상했다.

부품 사업은 메모리의 전년 대비 성수기 효과 약화와 LCD 수요 약세 우려가 있으나 시스템 LSI는 14나노 파운드리 공급 확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OLED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트(완제품) 사업의 경우 CE부문은 연말 성수기의 적극적인 판매 확대를 통해 실적 개선을 추진하고, IM부문은 3분기에 출시한 스마트폰 신모델의 판매확대와 비용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4분기에는 부품사업 성수기 효과 둔화와 환영향 축소 등으로 3분기 대비 실적 둔화가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기술 리더십 제고,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등 사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지난 28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이희국 LG창조경제지원단장 사장 등이 LG생산기술원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LG그룹

LG그룹-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 바이오 펀드' 첫 투자대상 선정

지피씨알·엠모니터에 각 10억

LG그룹과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바이오 벤처에 첫 투자를 진행한다.

LG그룹은 바이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조성한 1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 바이오 펀드'의 첫 투자 대상 기업으로 지피씨알과 엠모니터를 선정, 각각 10억원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지피씨알은 지난 2013년 11월 체내 세포를 미세한 크기로 연구하는 분자세포 분야 전문 연구원 3명이 서울대 생명공학연구실에 설립한 벤처기업이다. 이 회사는 사명과 동일한 단백질인 GPCR, 즉 'G-단백질 연결 수용체'를 전문으로 연구해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엠모니터는 지난해 7월 설립된 분자진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조 벤처기업이다. 분자진단이란 체내 세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자 수준의 변화를 평가하는 진단기법이다. 엠모니터는 분자진단 기술을 활용한 감염질병 진단 의료기기 세계 시장 규모가 약 4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 분야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이다.

윤준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초기 단계 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투자가 이뤄진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바이오 전용펀드를 통해 바이오 창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LG전자, TV로 웃고 휴대폰에 울고

3분기 영업익 2940억원
전분기대비 20.5% 늘어

올 3분기 성적표를 받아든 LG전자가 TV로는 웃었지만 휴대폰 때문에 울었다.

LG전자는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4조288억원, 영업이익 294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대비 36.8% 감소했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20.5% 늘어났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 줄었지만 전분기에 비해서는 0.7%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TV사업을 담당하는 HE사업본부의 경우 매출 4조2864억원, 영업이익 370억원을 달성했다. HE사업본부 매출은 올레드TV 및 울트라HD TV 판매 확대로 전분기 대비 약 9% 상승했다. 특히 북미, 중남미, 러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TV 출하량이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와 지속적인 원가개선 활동 효과로 3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휴대폰 사업부인 MC사업본부는 매출 3조3774억원, 영업적자 776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MC사업본부 매출은 성장시장 및 한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감소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3분기에는 149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으며, 이 가운데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은 역대 최다인 970만대를 판매했다.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는 매출 4조1534억원, 영업이익 2456억원으로 견조한 실적을 거뒀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북미, 한국 등 주력시장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에 따라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

신규 사업을 담당하는 VC사업본부는 매출 4786억원, 영업적자 8억원을 기록했다. VC사업본부의 매출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품 사업의 고성장세 지속으로 전분기 대비 6% 증가했다.

LG전자 측은 "4분기 TV시장은 울트라HD TV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휴대폰 시장은 치열한 시장점유율 경쟁이 예상된다"며 "제품 판매 확대를 적극 추진해 매출을 확대하고 원가 개선 활동을 통해 손익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LG전자,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가 4기 인증식… 13명 선정

LG전자는 지난 28일 서울 양재동 서초R&D캠퍼스에서 LG전자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가 4기 인증식을 열고 총 13명을 코딩 전문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LG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문제 해결 능력과 코딩 능력이 탁월한 우수 인재를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가로 선발한다. 동료 추천과 경연 대회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최고기술책임자(CTO) 및 기존 코딩 전문가 인터뷰로 심층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지난 2012년 첫 선발 후, 총 57명의 코딩 전문가가 선정됐다.

코딩 전문가는 개발 프로젝트 지원, 사내 연구원 대상 강의 및 세미나 진행 등 전사 차원의 소프트웨어 멘토로 활동하게 된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비롯해 해외연수 참여 기회, 세미나 활동비 등을 지원받고 성과가 탁월할 경우 연구위원 등 지속적인 성장기회를 보장받는다. /정은미 기자

폴크스바겐 사태 후폭풍… 친환경차 '시선집중'

닛산·도요타 등 日 강자들, 신차 공개 잇따라
현대·기아차도 수소차 등 라인업 키우며 도전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국내외 완성차 업계의 관심이 '친환경차'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29일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막한 '제44회 도쿄모터쇼 2015'에 참가한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을 대거 공개했다. 도쿄모터쇼는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참가하지 않지만 독일 프랑크푸르트모터쇼·스위스 제네바모터쇼·프랑스 파리모터쇼·미국 디트로이트모터쇼 등과 함께 세계 5대 모터쇼로 꼽힐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다. 올해는 11개국 160개 업체가 참여하며 76종의 신차가 소개됐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닛산은 자율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콘셉트카를 선보였다. 닛산이 선보인 차량은 대표 전기차 '리프'의 신형 모델이다. 1회 충전으로 약 280㎞를 주행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모델에 비해 약 25% 늘어난 효율이다.

만약 이 차량이 시판된다면 주행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쓰비시도 1회 충전으로 약 400㎞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콘셉트카 '미쓰비시 ex 콘셉트'를 공개했다.

1997년 '프리우스'를 출시하며 최초로 하이브리드차 상용화에 성공한 도요타는 '프리우스' 4세대 모델을 선보였다. 프리우스는 출시 이후 친환경성과 우수한 차량 성능으로 하이브리드 보급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듣는 모델이다. 4세대 프리우스는 엔진과 모터, 전지 등의 무게를 줄이며 연료효율성을 높였고 파워트레인을 낮게 배치해 안정성과 승차감을 높아졌다. 레이더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첨단 안전장비도 갖췄다. 올해 말 일본에서 출시 된 후 세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도요타가 제44회 도쿄 모터쇼 2015에서 발표한 프리우스 4세대와 현대차가 선보인 수소연료전지차 투싼ix FCEV. /도요타·현대차

여기에 수소 등을 이용한 연료전지자동차도 눈길을 끈다. 도요타는 현대차의 뒤를 이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콘셉트카인 '도요타 FC V 플러스'를 선보였다. 이 차량은 전기를 공급하는 스마트그리드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차가 발전한 전기를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이다. 차에 장착된 수소 탱크나 외부의 수소 공급 시설과 연결해 전기를 만들 수도 있다.

렉서스도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렉서스 LF-FC'를 공개했다. 이 차량은 렉서스 최초로 연료 전지 기술을 채용했다는 점과 세단 베이스의 콘셉트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혼다는 수소연료전지차 '크라리티 퓨엘셀'을 선보였다. 이 차는 한 번 수소를 충전하면 성인 5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최대 700㎞를 주행할 수 있다. 혼다는 내년 3월께 크라리티 퓨엘셀을 발매한 후 유럽과 미국 등지로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등 우리나라 자동차업체들은 일본 자동차 시장의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번 모터쇼에 출품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참가 업체 중 유일하게 수소차를 전시하기도 했다. 현대차가 선보인 '투싼 ix FCEV'는 수소 1회 충전으로 최대 594㎞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현대·기아차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진우 연구원은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전기차에 대한 논의는 '된다, 안된다'가 아닌 '언제부터 얼마나 될까'로 바뀌면서 전기차 시대가 앞당겨질 전망"이라며 "내년 현대·기아차의 경우 친환경차 판매는 18만5000대로 올해보다 4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한항공 '항공기 디자인' 공모전

대상에 국민대 강민옥·제세환의 'FIT YOUR AIR'

총 212팀 참가… 우수상 김태영씨·장려상 4팀 수상

대한항공은 28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빌딩 1층 문화예술 전시공간 '일우 스페이스'에서 지창훈 총괄사장을 비롯해 조현민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넵플러스 강준묵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비행기, 아트가 되다'의 시상식을 열었다.

지난 7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212팀이 참가해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의 향연을 펼친 바 있다.

이번 공모전 대상작에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한된 기내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이중 구조형 테이블 디자인을 선보인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과 강민옥, 제세환 씨의 'FIT YOUR AIR'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제안한 김태영씨가 선정됐으며 그 밖에도 장려상 4팀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이 대상 수상자들인 제세환, 강민옥(오른쪽부터)씨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이날 시상식장에는 6개 수상 작품은 물론, 본선에 오른 총 50여개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됐으며 오는 30일까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대한항공은 젊음의 에너지로 가득 찬 대학생들에게 '비행기, 아트가 되다'라는 독특한 주제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능한 미래의 아티스트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한편 대한항공은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을 비롯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되는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어린이 그림대회 등 다양한 문화마케팅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나라 문화 및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서울대공원에 '차카차카 놀이터' 개장

시각장애아동도 이용 가능

현대자동차와 서울시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신개념 자동차 테마 놀이터를 선보인다.

현대차는 29일 서울대공원에서 어린이 자동차 테마파크 '차카차카 놀이터' 개장식을 했다.

이 놀이터는 현대차가 쏘나타 출시 30주년을 기념해 서울대공원 내 계곡광장 인근 부지에 연면적 2045㎡ 규모로 조성해 서울대공원에 기부한 것이다.

시각장애아도 이용 가능한 '미니 쏘나타 트랙', 대형 쏘나타 모형 놀이 시설, 멸종 위기 동물 이야기를 전해주는 '동물 이야기 산책로'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차카차카'는 한국어와 영어로 자동차를 나타내는 '차(車)'와 '카(car)'의 합성어로 어린이들이 자동차에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어진 이름이다.

현대차는 이번 자동차 테마 놀이터가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새로운 여가 활동 및 교육 공간이 돼 사회 공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13년 청각장애인들이 음악을 느낄 수 있는 '쏘나타 터처블 뮤직시트'를 제작하고 농아학교에 기부한 바 있다.

차카차카 놀이터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미니 쏘나타 자율 주행 트랙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대차 키즈현대 사이트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잔여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쌍용자동차는 지난 28일 임직원 가족 300여명을 평택공장으로 초청해 회사와 유대를 돈독히 하고 가족 간의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직원 가족들이 생산 라인 현장투어를 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임직원 가족 초청해 유대감 다져

쌍용차
생산라인투어·행사 진행

쌍용자동차는 임직원 가족 300여명을 경기도 평택공장으로 초청해 회사와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가족 간의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임직원 가족들을 공장으로 초청해 회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및 회사와 가족들 간의 유대감과 한마음 일체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8일 공장을 방문한 임직원 가족들은 가족의 일터인 생산라인투어를 비롯해 행복한 가족 만들기 특별교양강좌, 사내 마술동호회 축하공연,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하는 체험 활동 및 주의집중 게임 등 다양하고 유익한 가족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노사 대표와의 대화 시간에는 회사 현황에 대한 소개와 중장기 비전 공유는 물론 회사의 당면 과제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를 굳건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식 쌍용자동차 대표이사는 "회사의 성공은 뛰어난 경영성과뿐 아니라 임직원들이 회사에 얼마나 유대감을 갖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임직원은 물론 임직원 가족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봉석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회사와 가족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T, 세계 첫 '5세대 글로벌혁신센터' 구축

삼성·인텔·에릭슨·노키아 세계적 IT기업들과 맞손 "내후년엔 5G 시범서비스"



SK텔레콤이 29일 경기 분당 소재 종합기술원에서 '5G글로벌 혁신센터'를 공개하고, 이를 전초기지로 삼아 2020년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하겠다는 자신감을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왼쪽 여섯 번째), 이형희 SK텔레콤 MNO총괄(왼쪽 다섯 번째), 노키아코리아 앤드류코프(왼쪽 열 번째) 사장 등 산·학·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인텔,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IT기업들과 공동으로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에 '5G 글로벌 혁신센터'를 구축했다.

SK텔레콤은 29일 개소식을 열어 자사의 분당 종합기술원 내에 자리한 5G 글로벌 혁신센터를 정부와 관련 업계, 학계 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5G와 연관된 최신 기술과 5G 시대에 본격화할 미래형 서비스를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이곳을 전초기지 삼아 2020년에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5G 시범서비스도 가장 먼저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다듬고 있다.

이날 공개된 센터는 ▲5G 기술 연구와 개발을 위한 5G 테스트베드 ▲미래형 서비스와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경험공간 ▲5G 생태계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T오픈랩 등 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술·서비스·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설이 한 공간에 마련된 셈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이미 개발된 5G 기술을 시연했다. SK텔레콤과 노키아는 19.1(Gbps, 1초에 1억 비트만큼 정보를 전송하는 단위)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초고주파대역에서 Gbps급 데이터 전송 기술과 다중 안테나 기술이 결합한 결과다. 10Gbps 이상의 속도가 나온 것은 세계 최초다. 이는 지난 2011년 7월 LTE 서비스 속도인 75Mbps에서 250배 이상 빨라진 수치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2기가바이트(GB)짜리 고화질 영화 한 편을 다운 받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밀리미터파 무선 전송 시스템과 실감형 5G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실감형 5G서비스는 스노우보딩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SK텔레콤은 5G 테스트베드를 이용해 인텔과 차세대 무선랜 연동기술과 다중 안테나 기술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다중 안테나 기술은 기지국 데이터 송·수신 용량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이밖에 5G로 실현 가능한 서비스도 공개됐다. SK텔레콤은 소니와 협력해 개발중인 '4K UHD 생방송 시스템'을 소개했다. 최신 4K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무선 네트워크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야외 생방송을 하기위해 위성네트워크, 광케이블, 중계소가 필요했다. 하지만 5G시대에는 무선전송 기술만으로 초고화질 영상을 보낼 수 있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학생이 3D화면으로 심장 구조에 대해 대화하는 시뮬레이션도 나왔다. 이처럼 협력사들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5G 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자사의 ICT 상생공간인 'T오픈랩' 공간을 2배 이상 확장하고 회의 공간을 추가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테스트베드와 가상체험 공간을 활용해 5G기술 발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현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동통신 CP, 이형희 SK텔레콤 MNO 총괄,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 전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권명숙 인텔코리아 사장 등 산학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해 5G 기술 개발 현장과 시연을 참관했다.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은 "고객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5G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향후 이곳에서 개발될 기술들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미래형 서비스를 연결시키고 진화시키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희 MNO총괄은 축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위에 모든 것이 융합되고 5G가 중심이 되는 미래사회에는 SK텔레콤에 지금까지보다 더 큰 역할과 책무가 주어질 것"이라며 "5G 글로벌 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고 새로운 고용창출과 동반성장을 견인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사회와 경제 발전의 퀀텀점프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KT, 6회 '클라우드 프론티어 2015' 개최

최신 기술·활용 사례 등 논의

클라우드 사업의 현황과 최신 기술,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콘퍼런스가 열렸다.

국내 1위의 인프라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올레 유클라우드 비즈'를 운영하는 KT는 29일 서울 잠실 롯데 호텔에서 '제6회 클라우드 프론티어 201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9일 서울 잠실 롯데 호텔에서 열린 '제6회 클라우드 프론티어 2015'에 이선우 KT 기업솔루션본부장 상무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KT

지난 2010년 KT가 기업형 클라우드 사업을 개시한 이후 6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기업의 IT 관계자 등 800명이 넘는 참관객이 함께 해 명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산업별 최적화된 클라우스 최신 기술과 트랜드, 클라우드를 활용한 산업별 성공 사례와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넷앱, 인텔코리아, 한국휴렛팩커드, 시트릭스시스템 등 클라우드 관련 사업자들이 대거 참석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과 최신 이슈 및 전략도 공유한다.

행사 주최인 KT는 자사의 클라우드 사업 추진 현황, 향후 발전 계획 및 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 전략을 소개한다. /정문경 기자

네이버, 3분기 모바일·해외 사업 잘했다

영업익 1995억·1년새 5.6%↑

네이버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9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83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고, 순이익은 1168억원으로 24% 줄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메신저 라인을 비롯한 글로벌 서비스 사업의 호조로 해외 매출 비중이 35%까지 확대됐다. 사업별 매출 및 비중은 ▲광고 5870억원(70%) ▲콘텐츠 2441억원(29%) ▲기타 86억원(1%)으로 집계됐다. 전체 매출 가운데 모바일 비중은 55%, PC는 45%를 차지했다.

자회사인 라인주식회사의 연결 매출은 작년 3분기보다 35.4% 증가한 322억엔을 기록,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다.

메신저 서비스 '라인'의 올해 3분기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전 분기에 비해 100만명 증가한 2억1200만명을 기록했다.

네이버의 황인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이 같은 라인 이용자 수를 공개하며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4개국에서 이용자 비중이 65%로 가장 많고, 이들 4개국에서 MAU는 1억3760만명"이라고 말했다.

또 4분기에 10개 이상의 라인 신규 게임을 출시하는 등 라인 게임 사업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황 CFO는 "라인 플랫폼에서 3분기에 7개의 신규게임을 출시했고, 4분기에도 10개 이상 출시할 예정"이라며 "장르적으로도 롤플레잉게임(RPG)을 비롯해 하드코어 작품 등 다양하게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쇼핑 플랫폼인 '쇼핑윈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네이버 페이'로 모바일 구매전환율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네이버지도, 예약 서비스 등과 연계해 범위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출시된 네이버 페이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사용처를 확대하고 제휴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 페이를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제휴 카드를 출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포인트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출시 첫 달 거래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고, 출시 100일만에 결제건수가 3000만건을 돌파했다. 가맹점 수는 총 6만2000여곳이다. 현재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600만명이다. /정문경 기자

개인카드 '음식점' 법인카드 '공과금'에 쓴다

3분기 카드이용액 166조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

10대 업종 승인금액 전년동기比 14.6% ↑

올 3·4분기(7~9월) 개인카드는 음식점, 법인카드는 공과금 결제에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166조52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3·4분기 카드승인금액 상위 10대 업종은 ▲일반 음식점 ▲인터넷상거래 ▲공과금 서비스 ▲주유소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국산신차판매 ▲일반백화점 ▲보험 ▲약국 순으로 조사됐다.

10대 업종의 카드승인 금액은 98조7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올 3분기 카드승인금액 상위 10대 업종>

단위 : 조원

업종		'14.3Q	'15.3Q	전년동분기대비	
				증감	증감률(%)
1.	일반 음식점	20.41	22.47	2.06	10.1
2.	인터넷상거래	13.32	15.78	2.46	18.5
3.	공과금 서비스	6.56	14.92	8.36	127.3
4.	주유소	12.06	11.23	−0.83	−6.8
5.	대형할인점	8.56	8.95	0.39	4.5
6.	슈퍼마켓	6.48	7.49	1.00	15.5
7.	국산신차판매	5.32	5.70	0.38	7.1
8.	일반백화점	4.15	4.60	0.45	10.8
9.	보험	4.01	4.21	0.20	4.9
10.	약국	3.27	3.38	0.11	3.5
상위 10대 카드승인금액		84.14	98.73	14.6	17.3
상위 10대 비중(%, %p)		57.2	59.3	2.1	

주 : 상위 10대 비중은 전체카드 승인금액에서 상위 10대 카드승인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여신금융연구소

전체카드 승인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7.2%로 2.1%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일반 음식점 △인터넷상거래 △주유소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공과금 서비스 △국산신차판매 △일반백화점 △보험 △편의점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카드의 10대 업종 승인금액은 74조6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늘었다. 음식점 사용액은 18조54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9%(1조6700억원) 증가했다.

3·4분기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12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2% 늘었다.

법인카드의 경우 △공과금 서비스 △일반 음식점 △주유소 △주차장 △인터넷상거래 △국산신차판매 △기타용역서비스 △대형할인점 △약국 △항공사 순으로 개인카드와 차이를 보였다.

법인카드 10대 업종 승인금액은 26조6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1% 급증했다. 공과금 결제금은 10조6400억원으로 197.0%(7조600억원) 늘면서 이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3·4분기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38조8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했다. 여기서 공과금을 제외한 승인금액은 10.4% 느는데 그쳐, 법인카드의 공과금 결제가 전체 증가를 견인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세의 카드납부 한도가 폐지되고, 4대 보험의 카드납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법인카드 만큼은 아니지만 개인카드 역시 공과금 결제가 늘면서, 전체 공과금 승인금액은 14조92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7.3% 증가했다.

3·4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166조5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늘었다. 전년 동기 증가율인 6.3%를 6.8%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김소영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6월 이후 4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도 7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해외여행객수가 증가하면서 여행업종의 3분기 카드승인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며 "저유가 기조와 저비용항공사의 경쟁으로 항공권 가격이 낮아지고, 원화강세로 해외여행의 가격경쟁력이 증가하면서 이 기간 항공사와 면세점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이 각각 6.8%, 38.8%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구조조정, 생산성 있는 기업 살리는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

'엄정·노력·신속' 3원칙 철저한 옥석가리기 유도



"구조조정의 목적이 한계기업 정리만이 아니며, 생산성 있는 기업은 살리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9일 서울 신문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에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기업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가리기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한 경영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을 구조조정 3원칙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려면개혁과제의 입법화·제도화가 중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된 법 개정안으로는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등을 꼽았다.

민상기 의장은 이날 안건인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에 대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책금융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여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책보증의 경우 오래되고 안정된 기업을 지원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창업·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장은 이어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대내외 금융여건을 고려하면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건전성 규제 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날 안건 가운데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방안은 다음달 1일, 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 방안은 4일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 kmh@

성인 10만명 당 은행점포 OECD평균의 73.6%

전문가, 인력 재배치·ATM 공동운영 등 효율화 주문

우리나라 성인 10만명당 은행점포수는 약 19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자 점포가 늘면서 '점포=영업력'인식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인력을 재 배치하거나 과잉 공급된 자동화기기(ATM·CD 등) 등을 은행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력을 통해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고 지적한다.

29일 금융연구원과 국제통화기금(IMF)의 FAS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국내은행 지점수는 6420개로, 20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18.4개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25)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국가별로는 스페인과 포르투칼이 각각 85.1개, 61.2개에 달했다. 이어 프랑스(38.8개), 미국(35.3개), 일본(33.8개). EU(32.2개) 등도 10만명 당 점포수가 30개 이상이었다.

홍콩, 중국 지역도 23.5개나 됐다. 전세계 평균은 11.7개였다. 소득이 높은 국가의 10만명당 점포수는 23.6개로, 저소득 국가 3.2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전문가들은 점포 효율화를 주문한다.

실제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의 급성장으로 적자 점포들이 많아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0년 530개였던 적자점포는 2013년 말 737개로 늘었다.

/김문호 기자

"예탁원 소유구조, 이용자 중심 개편"

유재훈 사장

"독점 관행 벗어나야"



한국예탁결제원이 고객 니즈(needs)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 시장형 기업으로 거듭난다. 또 한국거래소 중심의 소유구조도 바꿔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유재훈 예탁원 사장(**사진**)은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쓰게 하는 독점적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등 고객 스스로 예탁원 시스템에 만족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과거에는 좋든 싫든 고객사가 예탁원 시스템을 강제로 써야했지만 후강퉁(홍콩·상하이 증시 간 교차거래)이 시작되면서 증권사 자율에 따라 시스템을 사용하게 했다"며 "그 결과 증권사가 직접 예탁원 시스템을 사용해야겠다고 판단하고 5000억원, 3000억원 규모의 고객 계좌를 예탁원으로 옮기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올해 부산본사 경영을 본격화하고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영과 사업 환경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안은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자등록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25일 시행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따라 관련 시스템 개발과 업무규정 개정을 진행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들의 온라인 기업설명회(IR)를 지원하는 'IR114' 서비스와 증권·금융 관련 캡테크(자본+기술) 업체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유 사장은 또 예탁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보다 한국거래소의 보유지분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거래소 회원사인 증권사 외에 보험사와 은행 등 다양한 기관이 예탁결제원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이들이 우리 경영을 감시하도록 소유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거래소지주사 기업공개(IPO)의 선결과제로 거래소의 예탁원 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지배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는 현재 예탁원 지분 70.4%를 보유 중이다.

유 사장은 "정부·거래소와 긴밀히 협의해 예탁원 소유구조가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한국증시, 외국인 자금 이탈 언제까지?

하반기 이탈자금 8조 넘어
이달 7700억대 돌아왔지만
美·中경제 추가 유입 암초

지난 2009년 시작된 미국 양적완화(QE) 기간 유입된 주식자금(74조)의 11%에 해당하는 돈이 하반기에 한국시장을 떠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도 6% 가량의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달새 7749억원 넘게 사들인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치 않다. 미국의 금리 정상화에 대한 불안감과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하반기 8조1000억원 매도

29일 금융감독원과 국제금융센터,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의 양적완화(QE)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74조원 어치를 사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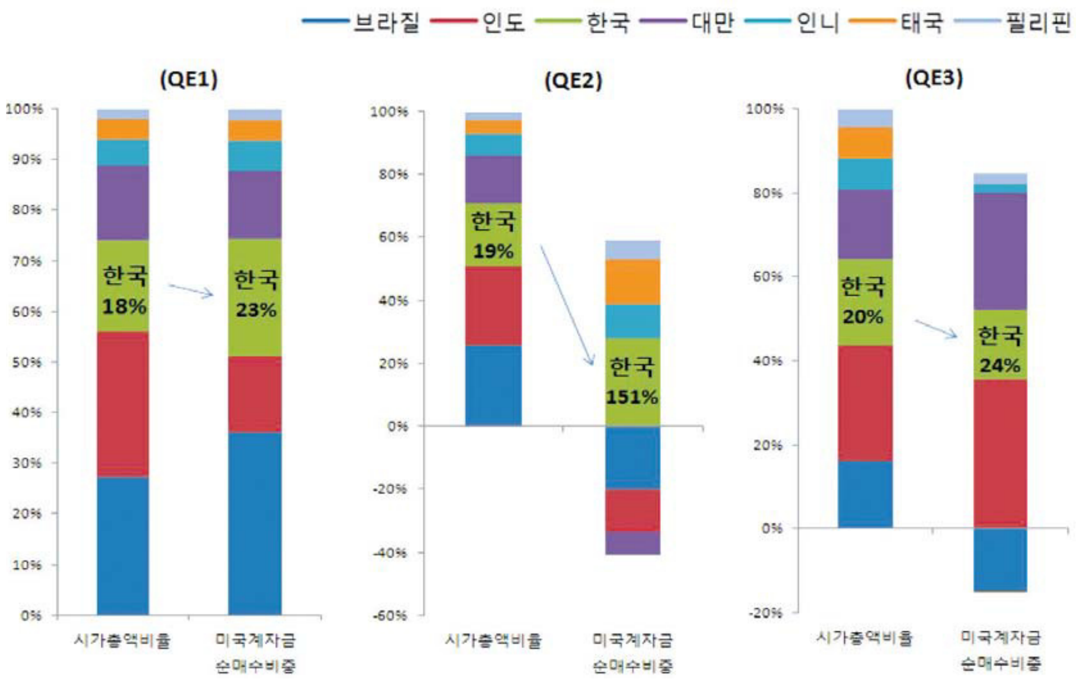
그러나 하반기 들어 8조1000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이는 양적완화 이후 유입된 외국인 주식자금의 11%에 해당한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하반기에 약 3조8000억원 어치를 팔았다.

이는 2009년~2015년 상반기까지 투자액 63조원의 6%에 달한다.

신흥국 시장 흐름도 비슷했다.

<양적완화 미국계 자금의 벤치마크 대비 신흥국 유입>



· QE1(1차 양적완화) 벤치마크 대비 한국시가총액 비중 18%, 미국계 자금 한국 순매수 비중 23%
· QE2(2차 양적완화) 벤치마크 대비 한국시가총액 비중 19%, 미국계 자금 한국 순매수 비중 151%
· QE3(3차 양적완화) 벤치마크 대비 한국시가총액 비중 20%, 미국계 자금 한국 순매수 비중 24%

이머징포트폴리오펀드리서치(EPFR)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선진채권과 주식에 각각 1000억 달러, 700억 달러가 순유입됐다.

반면 신흥채권에서는 150억 달러, 신흥주식에서는 620억달러가 각각 순유출됐다. QE기간 동안 유입된 금액(2300억 달러)의 33%(770억 달러)가 순 유출된 셈이다.

JP모간은 "연초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발표로 서유럽 중심의 자본유입이 가속화 됐다"면서 "미국의 경우 연내 금리인상 불확실성과 밸류에이션 고평가 우려로 주식자금이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올해 3·4분기 신흥국 시장에서 유출된 투자자금은 400억 달러로 분기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연간기준으로는 5400억 달러 순유출로 1988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 임기묵 연구원은 "신흥국 자금흐름은 미 금리 정상화와 중국경제 향방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자금이탈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으나 신흥국 불안이 심화되면 동조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급여건 나쁘지 않다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한국 주식은 1조 원. 발길을 돌린 것일까.

수급 여건만 보면 나쁘지 않다. 한때 한국 시장에 회의적이었던 장기투자 성향의 미국계 자금과 일본계 자금이 꾸준히 사고 있다.

하반기 다른 외국인이 파는 사이 미국계 자금은 7월 1조6000억원 순매수, 8월 6000억원 순매도, 9월 2000억원 순매수로 한국 주식 사랑이 식지 않았다. 미국계 자금이 외국인 매수의 주인공인 셈이다.

이웃한 일본계 자금도 지난 17개월간 연속 순유입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6월 이후 지난 8월까지 국내 증시로 유입된 일본계 자금 규모는 5조2000억원. 이는 같은 기간 미국계 자금(13조 원)에 이어 두 번째다.

유럽계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양적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부양정책 기조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기에 긍정적 소식"이라면서 "다만 부양 랠리 혹은 유동성 랠리가 미 연준의 정책기조와 달러화 흐름에 따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한국금융지주, 대우증권 인수전 가세

KB금융·미래에셋과 3파전

증권업계 최대 매물로 부상한 KDB대우증권 인수전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참여로 KB금융지주, 미래에셋그룹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9일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가 이사회를 열어 내달 2일 실시하는 대우증권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한국금융지주의 '비전2020'(시가총액 20조, 자기자본이익률 20%)을 달성하고 아시아 최고 투자은행으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덩치를 키워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인수 참여 결정 이유를 전했다.

자기자본 3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이 합치면 7조5000억원의 자본 규모로 국내 증권업계 1위 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한국금융지주는 특히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경쟁력을 보유한 대우증권의 해외 인프라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주체는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의 현금성 자산 회수와 은행 차입금 등을 통해 인수 자금 중 1조5000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한국금융지주가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계열사의 투자자산과 대여금 등을 회수하고 한국투자증권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별도의 증자 없이 대우증권 인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대우증권의 예상 인수가는 산업은행의 지분 가치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2조원 초·중반대로 추정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인수 자문을 위해 법률 자문사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정했으며 회계 자문은 삼정KPMG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8일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의 패키지 매각 공고를 냈다.

/김문호 기자

韓 채권 '투자매력' 꼴찌 수준

외국인 수익성 11개국 중 10위… 안정·유동은 합격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채권의 수익률이 다른 신흥국보다 낮아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한국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률 지표는 1.19%포인트로 분석 대상 11개 신흥국 중 10위에 불과했다.

이 지표는 5년 만기 국채 금리에서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을 뺀 것이다. 일종의 부도 위험을 제거한 수익률로 인식된다.

브라질이 11.38%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터키(7.29%포인트), 인도네시아(6.56%포인트), 인도(6.16%포인트), 남아프리카공화국(5.37%포인트), 멕시코(3.84%포인트), 필리핀(2.80%포인트), 중국(1.87%포인트), 말레이시아(1.77%포인트) 순이었다.

11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태국(0.85%p) 뿐이었다.

장기물 투자 시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로 수익을 계산한 채권 캐리수익(10년물 국채 금리-초단기 금리)도 한국이 11개국 중 9위에 그쳤다.

차익거래(3년물 국채-통화스와프금리) 지표로는 한국이 멕시코와 브라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해당국 통화를 차입·운용해 얻는 수익을 지칭하는 이른바 캐리수익 지표는 인도와 중국에 이어 한국이 3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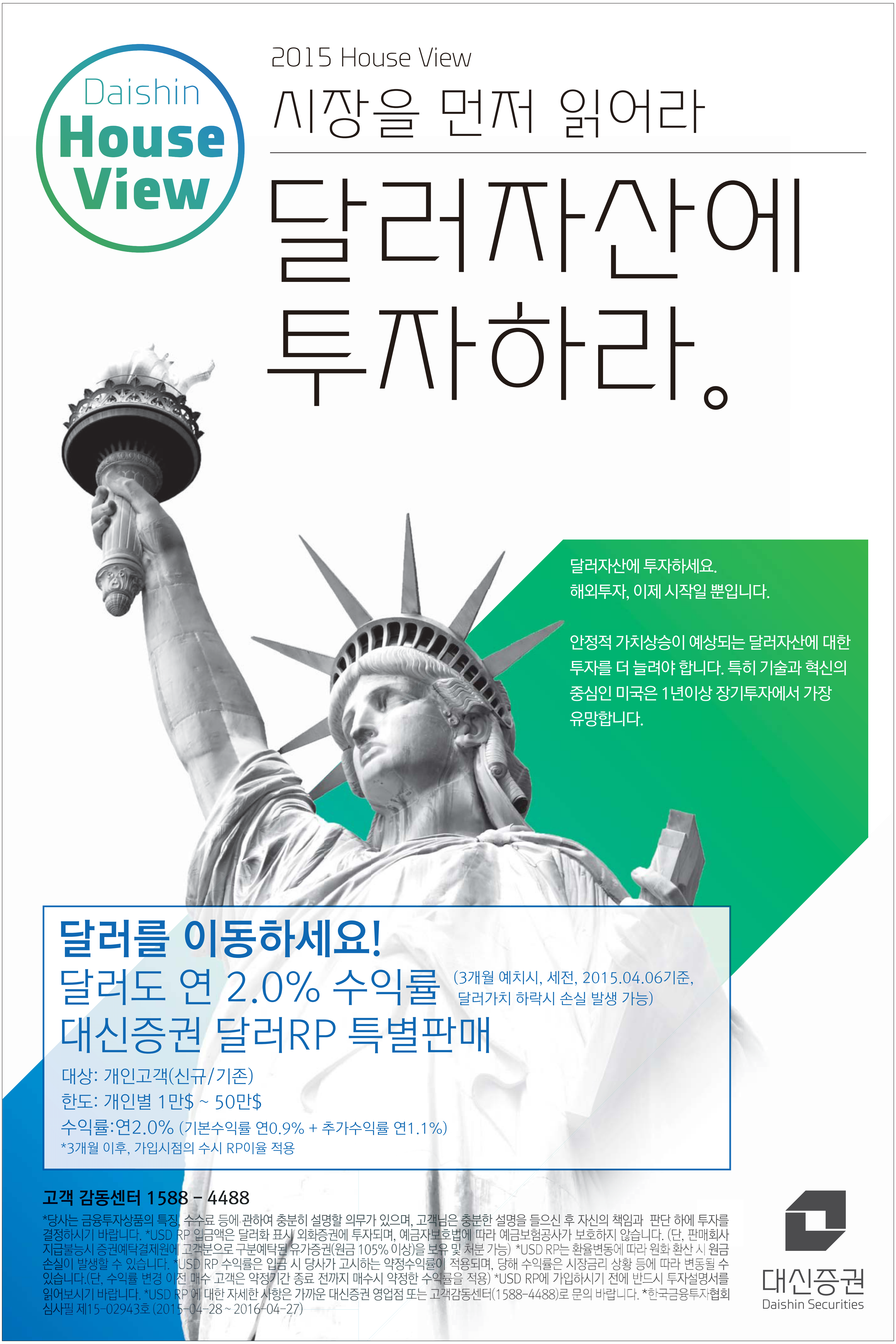
이처럼 한국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했지만 안정성이나 유동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업체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균으로 계산한 결과 한국이 11개 신흥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안정성 지표 중 외환보유액 대비 경상수지 비율(2014년)도 한국이 24.5%로 11개국 중 가장 높았다. 유동성 지표인 국채시장 규모는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였다.

이지현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양호한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과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시장규모, 캐리트레이드 유인 등이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 요인"이라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에 대한 채권 투자자금이 선진시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2015 House View
Daishin House View
시장을 먼저 읽어라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해외투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정적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혁신의 중심인 미국은 1년이상 장기투자에서 가장 유망합니다.
달러를 이동하세요!
달러도 연 2.0% 수익률 (3개월 예치시, 세전, 2015.04.06기준, 달러가치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
대신증권 달러RP 특별판매
대상: 개인고객(신규/기존)
한도: 개인별 1만$ ~ 50만$
수익률:연2.0% (기본수익률 연0.9% + 추가수익률 연1.1%)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 RP이율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입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5% 이상)을 보유 및 처분 가능)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수익률 변경 이전 매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943호 (2015-04-28 ~ 2016-04-27)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건설사, 분양 풍년 속 마케팅전 치열

"아파트 계약하면 외제차·명품백 드려요"

'천안 신성 미소지움' 청약자 중 BMW 추첨

대림산업·삼구건설 등 방문객 경품행사 다채

전국 분양시장이 성수기를 맞아 달아오르자 방문객을 사로잡기 위한 건설사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종 상품권이나 주방기구, 가전제품을 넘어 해외 유명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건설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청약 또는 계약을 하는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과 함께 대박 경품행사 당첨의 행운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견본주택은 연일 구름 인파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용인 한숲 시티는 지난 24~25일 15만명이 다녀간데 이어 26~28일까지 17만명이 방문했다.

이에 앞서 인천 송도 랜드마크시티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23~25일)주말동안 2만4000여명이 방문했으며 같은 기간 경기도 광주시와 파주시에서 문을 연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와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는 2만여명이 다녀갔다.



천안 두정 아이시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말 추첨을 통해 푸조 자동차를 증정할 계획이다.

대림산업이 지난 23일 오픈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견본주택에서는 선착순 이벤트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2000명), 텀블러(2000명), 주방세제세트(2000명), 캠핑돗자리(2000명) 등이 경품으로 제공되면서 동시에 이날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햅쌀 1kg을 나눠줬다.

견본주택 오픈에 맞춰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를 다녀온 방문객 김모씨(31・남)는 "관심을 갖고 있던 단지에서 대규모 경품행사를 한다기에 아침 일찍 서둘러 왔다"며 "에버랜드 자유이용권과 햅쌀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하고 또 현장 카페에서 음료와 빵, 아이스크림 등을 제공해줘 내 집 마련을 위한 견본주택 탐방과 사은품이라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방문객인 서모씨(35・여)는 "요즘 견본주택은 경품 행사도 많고 다양한 간식이 제공돼 친구나 가족, 아이와 함께 방문해도 보고 즐길것이 많아 좋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는 전용면적 44~103㎡ 6800가구 규모(일반공급 6725가구)이며 단지 내에 축구장 15배 크기 규모의 테마파크 6곳과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와 같은 날 견본주택이 열린 천안 두정 아이시티 지역주택조합은 11월 말까지 매주 견본주택 방문객 중 추첨을 통해 42인치 TV와 딤채냉장고(스탠드형), 청소기, 쿠쿠밥솥, 선풍기히터, 쌀(10kg)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조합원 가입자 중 추첨(12월 중)을 통해 '푸조208' 차량 1대를 증정한다.

두정 아이시티 사업 관계자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추첨을 통해 TV와 냉장고, 밥솥, 쌀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견본주택을 자주 방문하면 여러번 추첨(당첨)기회를 얻을 수 있고 조합원 중에서는 내 집 마련도 하고 외제차도 얻을 수 있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지는 충남 천안시 두정동 37-1번지 일원에 있으며 전용면적 59~84㎡ 952세대로 구성됐다.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이 가까우며 단지 안에 키즈워터파크와 실내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맘스데크, 소공연장, 작은도서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자산신탁이 분양하는 KTX 천안아산역 신성 미소지움은 견본주택 방문객과 청약신청자를 대상으로 외제차 등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산신탁은 31일 청약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BMW MINI' 차량 1대를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7일에는 견본주택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루이비통 가방(1명), 네스프레소 커피머신(4명), 일렉트로룩스 청소기(10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41~49㎡ 436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단지 내 시설로 피트니스센터, 맘스카페, 자주식 주차공간, 무인택배시스템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삼구건설이 경북 포항시 초곡지구에서 분양하는 '초곡 삼구트리니엔 시티'는 견본주택 방문객(또는 설문응답자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 100대와 드럼세탁기, 진공청소기 등을 제공한다.

청약자 대상 경품으로 샤넬 클래식 점보백과 루이비통 토탈리백, 샤넬 캐비어 장지갑, 에르메스 실크스카프70, 샤넬 캐비어 카드홀더, 루이비통 다미에 단지갑, 몽블랑 볼펜 등을 증정할 예정이어서 수요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지 규모는 전용면적 75~84㎡ 1609가구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은평구 분양 봇물… 연말 3376가구 쏟아져

은평뉴타운·녹번역 등 도심 대비 저렴한 시세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

최근 저금리 기조로 월세 전환이 늘면서 서울 도심을 벗어나려는 엑소더스(exodus・대탈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에 비해 시세가 저렴하다. 이에따라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로 집값이 오른 은평구 일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일대에서는 연말까지 3376가구가 분양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586가구다. 은평구 전세는 지난 2일 기준 3.3㎡당 904만원으로 서울 평균인 1100만원대보다 저렴한 반면 매매가는 상승했다. 같은 달 평균매매가는 5억4500만원으로 연초 4억9000만원보다 11% 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물량 공급이 이어진다.

<은평구 연내 분양단지>

단지명	세대수(일반분양)	전용면적(㎡)	분양시기
은평 신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380 (251)	59~84	11월
은평뉴타운 꿈에그린	142	59	10월
녹번동 래미안 북한산 베라힐즈	1,305 (337)	59~84	11월
은평 지웰 테라스	220	84	11월
녹번 1-1(현대건설)	958 (265)	미정	12월
은평스카이뷰자이	371	84	12월

* 분양계획은 업체 사정에 따라 분양시기, 공급규모 및 가구수 등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오피스텔 제외

자료 : 부동산 114·각사

한화건설은 최근 은평구 은평뉴타운상업4블록에 주거복합단지 은평뉴타운 꿈에그린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3개동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142가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9~21㎡ 302실이다.

삼성물산은 11월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인근 녹번1-2 재개발구역에서 래미안 북한산 베라힐즈 분양에 들어간다. 1305가구(일반분양 337가구) 규모다. 단지는 녹번역 역세권이어서 종로 등 도심은 15분, 강남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효성은 같은 달 서울 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인 은평 신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6개동이다. 전용면적 59~84㎡, 380가구로 구성된다. 일반에는 251가구가 공급된다. 단지는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다.

신영건설는 다음달 '은평 지웰 테라스'를 분양한다. 가구마다 독립적으로 설치된 테라스를 취향대로 활용할 수 있다. 전용면적 84㎡, 220가구 규모다.

현대건설은 연말 녹번1-1구역에서 958가구(일반분양 26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GS건설도 12월 은평스카이뷰자이 이 주상복합 분양을 준비중이다. 33층 3개동 전용면적 84㎡ 371가구 규모이며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이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구파발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다.

/박상길 기자

서울메트로 안전관리 현황·발전방안 세미나

"노후 전동차, 전면 교체 필요"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전동차를 전면 교체하는 등 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선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안전 예산을 현행 7.5%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의 안전관련 투자가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29일 서울 용답동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3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지하철 안전 경영 체제 구축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하루 45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메트로(1~4호선)가 그간 크고 작은 사건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건 사실"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수영 본부장의 발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서울지하철 안전관리현황과 발전방향, 서울메트로 안전관리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와 서울시의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및 정부의 안전・서비스 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확충 차입비 조달 지원은 18.3%에 그치고 있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최근 5년간 안전 예산을 전체 예산의 7.5% 수준으로만 투입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메트로는 정부의 철도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철도안전혁신대책, 철도역사 생활안전사고 저감계획 등으로 안전 관련 예산에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수준과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무임손실 비중 증가로 적자에 시달려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메트로는 2022년까지 안전관리 투자 비용에는 3조7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재원 확보에 가장 시급한 요소로 무임손실 축소를 꼽고 경로우대자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경로 우대자 운임 할인율은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길 기자

베일 벗은 '정구호式 휠라'… '젊음' 돋보여

<부사장 겸 크리에티브 디렉터>

20~30대 타깃 삼아
로고교체 등 전방위 개혁
캐주얼의류·가방은 접기로
정 "글로벌브랜드 영광 재현"



리뉴얼된 휠라 매장의 모습. 브랜드 정체성 개선에 발 맞춰 매장 인테리어도 전면 개선했다. /휠라코리아

정구호의 휠라가 베일을 벗었다. 그동안 휠라코리아는 여성복 '구호'로 알려진 정구호 부사장 겸 CD(Creative Director·크리에티브 디렉터)를 영입한 후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해왔다. 휠라는 정 부사장 영입 후 여성복에 강점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디자이너의 스포츠웨어 도전이라는 점에서 패션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29일 휠라코리아는 서울 가양동 한일물류센터에서 '휠라 브랜드 리뉴얼 프리젠테이션, 언론설명회'를 갖고 2016 봄·여름(SS)시즌부터 변화될 제품과 매장 컨셉트 등 리뉴얼 계획을 공개했다.

◆정구호식 휠라 전통 로고까지 바꿔

이날 휠라가 공개한 SS라인은 정 부사장의 브랜드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정 부사장의 휠라는 '젊음'과 '간결함'으로 대표된다. 타깃고객을 젊게 바꾸기 위해 기존 휠라 로고까지 손봤다.

정 부사장은 기존 휠라 로고 대표 3색인 화이트·네이비·레드를 과감히 버리고 블랙과 화이트로 간결하게 변경했다. 젊은층 공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 부사장이 '젊음'을 강조한 배경은 장수 브랜드와도 연계된 전략이다. 정 부사장의 대표 브랜드인 '구호'는 론칭 당시 2030을 겨냥했고 충성 고객들과 함께 점차 성숙해진 디자인을 도입, 현재는 당시 2030이었던 이들이 4050이 돼서도 찾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공개된 191개의 신상품에서도 기존 휠라와의 차별화를 엿볼 수 있다.

정 부사장은 "100여 년 이상 이어진 휠라의 브랜드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감성을 더한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브랜드로 브랜드 이미지를 재정립했다"며 스포츠 의류지만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점에 집중했음을 시사했다.

◆ 캐주얼 의류·가방 출시 안한다

정 부사장은 제품군도 과감히 정리했다. 브랜드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매출에 도움이 될지라도 포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휠라는 정부사장의 지휘아래 내년부터 캐주얼한 스웨터나 팬츠, 액세서리 가방의 출시를 중단키로 했다.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에 맞춰 매장 인테리어도 바꾼다.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스토어'를 표방하는 매장은 천연 우드, 크리스탈, 아크릴 소재 등의 가구와 설치물을 비치하고 구조물은 수직·수평 구조의 기하학 조형원리에 따라 심플하게 배치하게 된다. 현재 롯데백화점 휠라 키즈 매장이 리뉴얼 완료된 상태며 내년 초부터 전국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5월부터는 서울 이태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휠라 플래그십 스토어'도 설립한다.

아웃도어 제품군 출시에 대해서도 정 부회장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정 부사장은 "아웃도어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기존 레저에 국한돼 있던 스포츠 브랜드를 생활로 끌어낸다면 스포츠 브랜드 시장은 아웃도어 시장보다 10배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이번 리뉴얼을 계기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도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은 파슨스디자인스쿨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2000년 'F&F KUHO' 이사, 2000년 패션 브랜드 쌈지 대표, 2001년 제일모직 전무를 거쳤다. 2004년과 2005년에는 MBC 영화대상 미술상, 대종상 영화제 의상상, 아시아패션연합 한국협회 디자인 디렉터 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구호

한편 휠라코리아는 디자인을 총괄하는 정 부사장과 함께 경영을 총괄하는 신임 김진면 대표를 앞세워 새로운 영업전략도 전개할 계획이다. 매장 리뉴얼 후 휠라는 6개월 후부터 홈쇼핑, 마트 등으로 유통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휠라는 '나이키', '아디다스'를 능가하는 스포츠 브랜드를 목표로 2020년까지 매출 8000억원 달성(현재의 2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신동빈 회장, 청년에 희망 선물

롯데

청년희망펀드 100억 쾌척



롯데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한다. 신동빈 회장(사진)과 롯데 임원진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펀드에 10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롯데는 29일 청년희망펀드에 신 회장이 사재 70억원을, 롯데그룹 임원진이 30억원을 각각 기부하는 등 총 100억원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범사회적으로 조성된 펀드다. 기탁된 기부금은 청년 취업기회 확대, 구직애로 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에 쓰인다. 신 회장은 청년희망펀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열정과 도전정신을 펼칠 수 있도록 롯데가 적극 돕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고용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청년 창업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는 이미 지난 26일 투자법인인 '롯데액셀러레이터(가칭)'를 내년 초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엑셀러레이터는 신 회장의 사재 100억원을 포함,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사무공간 지원 ▲창업 전문가들의 1:1 멘토링 제공 ▲롯데 유통망을 활용한 테스트 베드(test bed) 제공 ▲M&A, 글로벌 사업 지원 등을 통해 3년간 100개 이상의 우수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롯데하이마트

중고제품 반납하면 전기매트 살 때 할인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난방용 가전제품 매출액이 전주 같은 기간(17~21일) 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기담요 매출은 30% 증가했다. 가정용 전기히터와 가정용 전기 온풍기는 각각 110%, 140% 늘었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31일까지 '전기매트 중고보상 판매' 이벤트를 연다. 전기매트류를 구매할 때 사용하던 전기담요, 전기방석 등을 반납하면 3만원을 할인해준다. 또 전기히터, 전기담요, 가습기 등 기획모델 20여 종을 선정, 약 40% 할인 판매한다.

/정용기 기자 yonggi@

홈플러스

대형 보온시트·침구·전기요 등 내달 18일까지 월동상품 할인



29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이 방한용품을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전국 홈플러스 141개 점포에서 월동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미리 준비하는 겨울 방한 대전'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내달 18일까지 '3M 이중구조 대용량 단열시트(5미터)'는 2만1500원, '3M 풍경이 보이는 보온시트'는 6900원에 각각 판매한다. 3M 단열시트 6종을 2개 이상 구매하면 20% 할인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겨울 침구도 최대 반값에 판다. 거위털 100% 차렵이불을 50% 할인해 싱글 2만9800원, 퀸 3만9800원에 판매한다. 극세사 차렵이불 싱글사이즈도 50% 할인해 2만5000원에 판매한다. 또 대진 극세사 1인용 전기요를 50% 이상 할인해 싱글 3만9800원, 더블은 4만4800원에 판매한다. /정용기 기자



11번가

실내용 텐트·온수매트 등 '겨울 난방비 다운' 기획전

11번가는 월동준비를 시작한 고객들을 위해 31일까지 '올 겨울 난방비 다운' 기획전을 열고 방한, 보온용품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조아캠프 실내용 원터치 난방텐트'(3~4인용)는 2만6900원, '일월 온수매트'는 8만8000원, '쁘리엘리 극세사 침구세트'는 4만6900원이다. 개성 있는 디자인의 '키친아트 보온병'(7900원)과 실내 단열 필수품 '3M 스카치 보온 시트'(8900원)는 '1+1' 행사를 진행한다.

또 11번가는 11월 1일 하루 '11번가 데이'를 실시, 11번가 내 방한, 보온상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차감 11%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용기 기자

가전·식품기업 '문화유산 지킴이' 앞장

LG전자, 경복궁서 '문화유산전'
동서식품, 창덕궁 환경 정화 등
문화재 보전·관광지 홍보 나서

여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기업들이 역사 지킴이로 나서는 대비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논쟁의 대상인 '역사'가 기업에게는 '지켜야 할 우리 것'으로 인식되는 모양새다. 특히 소비자 대상 판매 비중이 높은 가전, 식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7일 문화재청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지킴이' 협약식을 갖고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했다.



LG전자와 문화재청은 지난 27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지킴이' 협약식을 갖고, 현재 경복궁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시 만난 우리 문화유산전'을 28일부터 고궁박물관에서 진행한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사장(맨 왼쪽)과 나선화 문화재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고궁박물관에서 올레드 TV를 통해 캐나다 온타리오 박물관에 전시된 금동사리함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는 문화재지킴이의 일환으로 현재 경복궁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시 만난 우리 문화유산전'을 고궁박물관에서 28일부터 시작했다. LG전자는 이 행사에서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6개국 주요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들을 울트라HD 화질 영상으로 촬영해 올레드 TV로 보여준다. 고궁박물관 행사에서는 올레드 TV 23대가 동원됐다. LG전자는 올해 처음 진행한 '대한민국 문화유산 전시회'를 내년에도 개최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도 이에 앞서 문화재청과 보물 제818호 장경궁 통명전의 보존관리를 후원하는 문화재 지킴이 협약식을 체결했다. LG생활건강은 궁중화장품 브랜드 '더 히스토리 오브 후'를 통해 궁궐의 아름다움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현왕후가 거처하던 창경궁 통명전의 보존 및 관리, 왕실여성 문화콘텐츠 제작 전시 등을 지원한다.

동서식품도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지난 5월 창덕궁의 환경정화활동을 시작으로 동서식품 대표 브랜드인 맥심을 통한 문화재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동서식품은 지난 7월 '맥심 헤리티지 캠페인'을 통해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대규격 제품 패키지에 문화재를 인쇄한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사무실이나 가정에 놓인 맥심 커피를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재를 접하고 관심을 갖도록 한 것.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

KGC인삼공사는 최근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선물용 홍삼인 '홍삼정로얄 투어에디션'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우리 문화재와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 패키지에 성산일출봉, 설악산, 불국사와 석굴암 등 한국의 관광명소 8곳의 삽화를 삽입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중국어와 영어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는 전통 먹거리를 알릴 수 있도록 지난 추석명절 무형문화재 전수자와 손잡고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전통식품명인 33호 남도의례음식 문화재전수자 박순애 전통식품명인이 만든 '제대로 만든 디저트 약과'와 '정성가득 전통세트' 2종이 주인공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매일유업, 中 특수분유 시장 노크

현지 1위 기업과 조인트벤처 설립
연내 공동 개발 브랜드 출시키로

매일유업이 3000억 중국 특수분유 시장 공략에 나선다.

매일유업 중국 내 1위 유아식 기업인 비잉메이트(Beingmate) 본사(항주)에서 특수분유 공동 연구와 중국 특수분유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인트벤처협약을 체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설립할 조인트벤처를 통해 양사는 중국 내 특수분유 브랜드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매일유업은 특수분유 생산을, 비잉메이트는 중국 내 마케팅, 영업을 담당할 예정이다. 조인트벤처 계약은 중국 정부의 인허가를 거친 후 내년 초 설립될 전망이다. 매일유업은 최근 설립한 홍콩법인을 통해 조인트벤처에 투자할 계획이다. 총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합자비율은 비잉메이트 60%(6억원), 매일유업 40%(4억원)이다.

양사의 첫 제품은 줘뤄이캉(佐瑞康)이라는 공동 브랜드. 연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중국 비잉메이트 황타오 사장(왼쪽)과 매일유업 김선희 대표가 JV 설립 계약 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 /매일유업

매일유업 관계자는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해 중국 유아식 시장에 대한민국 특수분유의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중국 영유아의 체질을 높이고, 첨단 유아식 분야에서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지난 해 중국 조제분유 시장은 1200억 위안(21조6000억원)이었으며 이중 특수분유 시장은 16억 위안 (2880억원)으로 추정된다.

/유현희 기자

새로 나왔어요

파리바게뜨 '수능선물세트'
패키지에 컨디션 유지 배려 담아



SPC그룹의 계열사 파리바게뜨가 수능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능선물세트는 견과류, 검은콩을 이용한 호두떡, 검은콩떡, 흑미호두구움찰떡 등으로 구성됐다. 또 컨디션 유지에 도움 되는 그림들이 제품패키지로 사용됐다. 사용된 4종의 그림은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김선현 교수가 직접 선정한 작품들이다. /김성현 기자 minus@

넥타이·하이힐 부대, 회식날 홍대로…

가성비 높은 메뉴 선호 추세
상상마당~상수역 상권 점령

넥타이를 맨 40대 부장, 하이힐을 신은 30대 후반 골드미스 차장의 회식장소로 홍대가 급부상했다. 홍대상권이 대표적인 대학생들의 거리로 자리매김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KT&G의 상상마당 앞 도로를 기점으로 상수역 방향 유흥가는 대부분 3040이 점령한 지 오래다. 3040의 홍대 유입 증가는 색다른 회식문화를 원하는 이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외식업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28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가치있는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가격대비 성능(가성비)이 높은 메뉴를 선호하는 직장인 회식문화가 확산 추세다. 홍대상권은 그동안 대학생을 겨냥해왔던 상권의 특성상 가격경쟁력이 높은 메뉴를 앞세운 외식업체가 많았다. 가격면에서는 회식장소로 최적의 장소였던 셈. 3040의 유입이 늘자 대학생보다 씀씀이(?)가 큰 직장인들을 겨냥한 서비스 도입도 늘고 있다.

◆ 복고인테리어로 향수 자극하는 '삼거리 푸줏간'

직장인 회식 장소 중 가장 호응도가 높은 단골 메뉴는 고기이다. 최근 한 보험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고의 회식메뉴로 삼겹살이 65%를 차지할 정도다.

홍대에 즐비한 돼지고기 전문점 중에서도 복고 인테리어로 다양한 연령층의 직장인 마음을 사로잡은 프리미엄 돼지고기 전문점 '삼거리 푸줏간'은 단연 최고의 회식장소로 꼽히고 있다. 단순히 '먹는 곳'이 아니라 '경험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다양한 연령층이 섞여있는 직장인 부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삼거리 푸줏간은 입구 쪽에 돼지고기 숙성실인 쇼케이스를 마련해 푸줏간에서 판매하는 돈육들과 정육점을 상징하는 소품을 전시해 안전한 먹거리임을 강조한다.



회식을 위한 메뉴를 갖춘 삼거리 푸줏간은 향수를 자극하는 인테리어로 30~40대 사이에 인기다.

회식의 주메뉴인 돼지고기도 전문 셰프를 영입해 일반 구이전문점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삼겹살, 목살, 항정살로 구성된 '푸줏간 한판' 메뉴를 선보인 것도 아이디어다.

◆ 프랑스요리를 착한 가격에 즐기는 펍 '요정'

폭음하는 회식 중심에서 즐기는 회식으로 변모하는 트렌드에 따라 주목받는 곳도 있다.

셰프 열풍에 따라 특별한 요리를 선보이는 프렌치 레스토랑 '요정'은 세계적인 요리학교인 '르 꼬르동 블루' 출신의 셰프 5인이 직접 요리한 메뉴를 선보여 젊은 직장인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연남동에 위치한 요정은 부드러운 프랑스식 통닭과 겨자 비네그레뜨 샐러드를 곁들인 프랑스식 치킨, 살아있는 달팽이를 허브버터로 구워 소스에 버무린 새콤달콤한 달팽이 냉파스타, 담백한 닭고기를 레드와인에 조린 프랑스식 전통 가정식 메뉴 빠리 찜 등을 선보이고 있다.

◆ 회의도 하고 캠핑도 하는 '액션그릴'

캠핑의 인기에 발맞춘 회식장소도 있다. 마당이 있는 이층집을 개조해 만든 액션그릴은 20명 남짓이 모여 회식하기 적합한 공간이다.

캠핑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장작, 매장 곳곳에 있는 돌담길, 편안한 간이 의자 등을 비치해 캠핑을 온 듯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특히 회식 전 간단한 PT가 필요한 모임을 위해, 스크린을 설치해 회의와 회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홍대가 대학생을 위한 상권에서 회식장소로 부상하면서 대형룸을 비치하는 식당이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직장인을 위한 메뉴와 서비스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매장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유현희 기자

하롱베이 3000개 섬 사이, 태고의 숨결을 엿보다

베트남항공 '인천~하노이'선 운항

베트남항공이 동계 시즌 인천~하노이 노선을 운항한다.

베트남항공은 지난 15일 베트남항공 한국지점(지점장 까오 안 썬) 인천공항에서 에어버스 A350-900XWB 운항 기념 행사를 하고 동계 시즌 인천-하노이 노선(VN415편)을 내년 3월 26일까지 운항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2대의 에어버스 A350-900XWB를 갖고 있는 베트남항공은 2020년까지 총 14대의 항공기를 보유할 예정이다. 에어버스 A350-900XWB는 다른 항공기재와 다른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했다. 탄소 배출을 25% 절감해 친환경적이고 기체의 70%를 이루는 티타늄, 알류미늄 합금과 동체의 53%를 차지하는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항공기 운영비용을 최소화했다.

한편 2015~16 동계시즌에 운항하는 인천~하노이 노선은 지난 3년간 총 여행객이 연평균 21.1%씩 증가하고 평균 탑승률이 80%를 상회할 만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항공사들의 잇따른 신규 취항으로 비즈니스와 관광 수요가 한층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아름다운 절경으로 손꼽히는 베트남 하노이의 앞 바다. 크고 작은 기암절벽이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한다.

친환경 항공기로 탄소배출 25% 절감
2020년까지 총 14대 항공기 보유키로
유서 깊은 사찰·식민지풍 건물 즐비

◆ 하노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지리적으로 홍강(홍하)을 낀 삼각주 델타지대로 비옥한 평야가 많아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했다. 인구 400만명(2002년 6월)에 면적 934㎢, 연강수량 1763㎜, 연중 평균 기온 23.3℃이다. 비교적 4계절이 뚜렷하며 호수와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에 걸맞게 유서깊은 사찰, 식민지풍 교회나 건물도 많다. 무채색의 건물들이 빚어내는 조화, 아기자기한 골목, 그리고 포장마차와 가게들이 몰려있는 거리 풍경은 운치가 있다. 남부 베트남의 호치민이 경제 중심지라면 하노이는 명실상부한 정치 중심지다. 때문에 시내 여기저기에서 구 소련의 영향과 사회주의 냄새가 느껴진다. 남성들이 쓰고 있는 짙은 녹색의 모자, 레닌 공원에 있는 미국 전투기 놀이 도구 등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을 어두운 이미지로 받아들일지도 모르지만 활기가 넘치는 호치민과 비교하면서 하노이를 여행하면 조용하고 아늑한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 하롱베이

하롱베이 국립공원은 영화 '인도차이나'와 로빈 윌리엄스의 '굿모닝 베트남'의 배경이 됐던 곳으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하노이 동쪽에 위치한 이 공원은 미려한 장관으로 유명하다.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답다. 특히 3000개 이상의 섬들이 보여주는 장관은 스펙타클 그 자체다.

이 국립공원의 역사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쟁과 반란은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 던 것이다. 문화의 보존 노력은 도만카 씨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는 복무 중에도 동료들의 도움으로 많은 문화재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의 노력은 이 국립공원 안에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이어졌고 베트남 전쟁 중인 1962년 마침내 그의 꿈이 실현됐다. 하롱베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 32년 후 1994년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선포됐다.

하롱베이는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약 4시간 거리다. 버스로는 베이차이나 홍가이에서 약 6시간이 소요된다. 하이퐁에서도 베이차이나 홍가이로 가는 버스편이 있다. 하노이 동쪽으로 110㎞ 떨어져 있어 3시간이 걸린다. 하이퐁에서 매일 페리가 운항, 약 3시간이 소요된다.

◆ 승솟 동굴

최근에 발견된 석회석 동굴로 하롱만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로 손꼽힌다. 선착장에서 내려 입장권을 확인받은 후 가파른 돌계단과 숲으로 이어진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면 동굴의 좁은 입구에 도착한다.

동굴 안에 들어서면 좁은 입구와는 달리 130m 길이의 웅장한 내부가 드러난다. 간간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과 잘 꾸며진 내부 조명으로 동굴의 환상적인 자태를 볼 수 있다. 내부길을 따라 내려가면 동굴의 중심에 도착한다. 그곳은 '하늘의 지붕'이라고 불릴 만큼 높고 웅장한 천장이 있으며 4개의 기둥이 이를 떠받치고 있다. 종유석이 만들어낸 자연 돌커튼과 여러 종유석 사이를 휘감으며 들어오는 바람은 드럼 소리를 만들어 낸다. 동굴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마지막 돌기둥을 휘감아 내려와 3개의 작은 연못을 만든 후 동굴 밖으로 흘러나간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찰음식부터 퓨전한식까지… 韓상차림

한국관광公 'K-푸드 페스티벌'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 청계광장서
전시·시연·시식 등 즐길거리 풍성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5 K-Food Festival'이 개최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5 K-Food Festival'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재료가 한데 모여 조화로운 맛을 내는 한식을 세계인이 함께 즐기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페스티벌 홍보부스는 다양한 상차림과 무대를 통해 한식을 직접 맛 '보고' 옛 맛을 '잇고' 재미와 한류를 '더하며' 미래의 음식을 '찾고' 관광객들이 '웃는다'는 5가지 메시지를 전한다.

K-Food의 근간이 되는 궁중, 종가, 사찰음식에서부터 현대인이 사랑하는 한식과 미래지향적인 한식까지 골고루 내놨다. 또 음식들을 담는 전통 도자와 한국식 테이블웨어도 감상할 수 있다.

다채로운 전시, 시연, 시식을 위해 궁중음식연구원, 안동권씨충재권벌종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등과의 협업과 현대적 장르의 한식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밍글스'의 강민구 셰프의 마스터 클래스 시연, '정식당' 임정식 셰프의 전시 등도 마련됐다. 또 김락훈·조성주 셰프의 오픈스튜디오와 어린이들의 음식모형 미니어처 만들기 체험,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 공연 등 흥미있는 볼거리도 준비됐다. 개막식은 31일 2시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이사장, 사찰음식 전문가 적문스님과 유명 셰프 등이 참석한다. /신원선 기자

서울시 '나와 너의 서울' 만든다

새 브랜드 'I.SEOUL.U' 선정
'나와 네가 서울로 이어짐' 담아



서울시 새 브랜드. /서울시

서울시의 새 브랜드 'I.SEOUL.U'가 '하이 서울'의 뒤를 잇는다.

29일 서울시는 전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 새 브랜드 선포식에서 'I.SEOUL.U'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민 1000명과 전문가가 'I.SEOUL.U', 'seouling', 'SEOULMATE' 등 3개 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I.SEOUL.U'가 58.2%의 지지율을 얻었다.

'I.SEOUL.U'는 사전투표에서 4만9189표(36.5%), 시민 심사단 682표(59.8%), 전문가 심사단 9표(100%)를 얻었다. 점수 비율은 각각 50%, 25%, 25%다.

브랜드를 고안한 대학생 이하린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서울을 나와 네가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아 만들었다"고 말했다. BI 제작자 최혜진 씨는 "I 옆의 붉은 점은 열정을, U 옆의 푸른 점은 여유를 상징한다"며 "대비되는 색이 서울을 두고 공존한다는 걸 디자인팀과 함께 고민해 표현했다"고 콘셉트를 설명했다.

'I.SEOUL.U'는 일정한 조건 하에 누구나 자유롭게 디자인과 형태를 변형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 비즈니스 방식으로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다.

/신원선 기자

"성실함·부지런함·책임감, 이것 빼면 저는 시체죠

영화 '그놈이다' **주원**



바른생활 청년. 주원(28)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이었다. 이 젊은 배우는 뮤지컬로 연기를 시작해 드라마와 영화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그리고 큰 부침 없이 탄탄대로를 달리며 20대 대표 청춘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행보에 자신감이 생길 만도 하지만 주원은 그러지 않았다. 작품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짧은 시간에 단단한 배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29일 개봉한 '그놈이다'(감독 윤준형)로 주원이 1년여 만에 영화로 돌아왔다. 부둣가 마을에서 부모님 없이 여동생과 살아가던 청년 장우(주원)가 여동생이 살해된 뒤 무작정 범인을 쫓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다.

주원은 드라마에서는 소문난 흥행 보증수표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왔다. 그런 그에게 '그놈이다'는 첫 스릴러라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나에게도 스릴러가 들어오는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반가웠어요(웃음). 남자라면 스릴러는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장르잖아요. 여기에 굿이나 빙의처럼 한국적인 요소가 있어서 더욱 좋았어요."

새로운 도전과 경험도 많았다. 액션과 추격전, 첫 사투리 연기 등이 그러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역시 캐릭터의 감정이었다. 여동생을 잃어버린 오빠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가게 그려내는 것, 그것이 주원이 이번 영화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자 힘들었던 점이다.

"영화 시작부터 동생이 죽잖아요. 그래서 장우는 좀처럼 좋은 감정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우울해 할 수도 없고요. 범인을 쫓는 가운데에서도 여동생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해서 매 장면 감정이 다운되기도 했죠. 물론 촬영이 끝나면 '칠렐레팔렐레' 하며 돌아다녔지만요(웃음)."

영화의 절정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장우가 범인의 정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이다. 억울함·안타까움·분노 등 복잡한 마음에 휘말린 장우가 감정적으로 가장 폭발하는 순간이다. 이전까지의 작품에서도 캐릭터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경험은 많았다. 그러나 '그놈이다'는 지금까지의 연기를 뛰어넘는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주원에게 특별하다. "생각 이상의 감정이 나오니까 무언가 빵 뚫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짜릿했죠.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웃음)."

배우로서 순탄한 길을 걸어왔지만 주원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없다"며 겸손하게 말했다.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체력이 좋고 책임감 있는 것, 이것만 빼면 저는 시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다.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책임감 있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다.

여동생 잃은 오빠 힘들었지만
첫 스릴러 작품이라 반가웠죠

연기 짜릿함 느낀 특별한 경험
행복한 마음으로 연기하고파"

큰 인기에 휘말려 흔들리거나 유혹을 받는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주원은 "나는 누가 날 흔들어도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답답한 스타일"이라며 웃었다. 그 웃음이 순수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물었다. 인기 속에서도 잃지 않고 싶은 초심은 무엇인지 말이다. 그는 주저 없이 '행복'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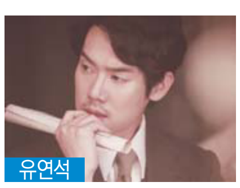
"저에게 행복은 '내가 좋은가? 싫은가?'에 달려 있어요. 괴로운 걸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즐거운 일이라면 언젠가는 꼭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미래를 위해 계속 나아가고 싶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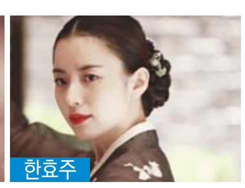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노래·운명 얽힌 '비극의 시대' 극장서 본다

한효주·유연석·천우희 주연
영화 '해어화' 내년 개봉 눈앞







한효주·유연석·천우희 주연의 영화 '해어화'가 4개월 동안의 촬영을 마치고 지난 17일 서울에서 크랭크업했다.

'해어화'는 194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정가의 명인으로 최고의 가수를 꿈꾸는 정소율(한효주), 그녀와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 서연희(천우희), 그리고 당대를 풍미한 최고의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윤우(유연석)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제목은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움과 기예를 모두 갖춘 여인을 의미한다. 비극의 시대에 세 남녀의 운명과 재능이 빚어내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름답고 절절한 음악과 함께 한다.

촬영을 마친 뒤 한효주는 "준비 과정을 포함해 약 1년여 동안 매진했던 작품이기에 마지막 촬영이라는 것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 애정을 쏟은 만큼 아쉬움도 크다.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유연석은 "마지막 촬영이라는 것이 아직 실감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하고 열심히 작업한 만큼 후반작업까지 잘 마무리해서 좋은 작품으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우희는 "아쉽기도 하고 시원섭섭하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작품인 만큼 잘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해어화'는 후반작업을 거쳐 내년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中 흥행작 한자리에… '중국영화제' 개막

일부 인기作은 이미 매진
내달 3일까지 여의도CGV

2015 중국영화제가 오는 30일 CGV 여의도에서 개막한다.

중국영화제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영화국과 한국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CJ CGV와 CJ E&M이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해 두 나라를 오가며 격년으로 개최해 왔다.

올해 영화제는 '대륙을 휩쓴 메가히트작 10'이라는 주제로 중국 박스오피스를 강타한 흥행작과 중국 거장 감독의 최신작들을 선보인다. 주요 작품들의 경우 일찌감치 매진 행렬을 기록해 추가 편성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중국판 '수상한 그녀'인 '20세여 다시 한 번'은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최시원이 출연한 개막작 '파풍', 중국에서 65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중국 역대 최대 흥행작 '몬스터 헌트'도 기대되는 작품이다.

2015 중국영화제는 30일 CGV 여의도에서 개막해 다음달 1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된다.

/장병호 기자


channel
DRAMA cube
E채널 X 드라마큐브 동시방송
당신의 심장은 지금 우리들 만큼
뜨겁게 뛰어본 적이 있는가
로드트립 공감 드라마
라이더스
내일을 잡아라
11월 8일 일요일 밤 11시 첫방송
김동욱 | 이청아 | 최여진 | 윤종훈 | 최민 길해연 장호일 정이랑 이희진 미람 조병규 | 특별출연 | 권해효 홍석천 김강현 이동훈 | 극본 | 박상희 | 연출 | 최도훈
t.cast

되살아난 '꼭대기장터' 낙산어린이공원서 열린다

내달 1일부터 매월 첫주 일요일



1990년대 이전 낙산 꼭대기 일대에서 열렸던 시장이 주민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재현된다.

서울시는 '장신마을 넷'과 함께 창신숭인지역 낙산어린이공원에서 내달 1일 '꼭대기장터'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꼭대기장터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주제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아 기획된 행사로 올해 6월 시작 이래 연간 약 1000여 명이 방문, 지역의 대표적인 주민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11월 1일에 열리는 올해의 마지막 꼭대기장터는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인터넷라디오 방송인 '덤'의 생방송, 정림건축문화재단의 창신동 사진전, 그림 전시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있다.

한편 꼭대기장터는 1990년대 창신동 시민아파트가 철거되기 전까지 낙산꼭대기 일대에 활기찬 시장이 열렸다는 마을주민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지역공동체 조직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 개최한다. /염지은 기자

가을의 여운 '파우스트'로 느낀다

서울시오페라단 30주년 기념作 내달 25일부터 세종문화회관서

독일의 대 문호 괴테의 문학작품에 프랑스 낭만주의의 대표 작곡가 구노의 음악이 가미된 오페라 대작 '파우스트'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서울시오페라단(단장 이건용)은 창단 30주년을 맞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오페라 '파우스트'를 공연한다.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존 듀와 무대디자이너 디르크 호프아커가 제작에 참여했다. 동양인 최초로 '베를린 슈타츠 오퍼'에서 부지휘자로 활동한바 있는 윤호근이 지휘하고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는 괴테 인생 말기의 역작으로 1775년 초고를 작성한 이후 수정을 거쳐 1832년에 완성됐다.

오페라 파우스트는 파우스트가 늙음을 비탄하는 1막으로 시작해 축제와 사랑의 장면이 나오는 2~4막을 지나 비극적인 5막으로 끝난다. 노년의 철학자가 젊음을 되찾고 악마가 나오는 등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이야기다.


2013 독일오페라 보체크. /서울시오페라단

이성적인 주체인 '파우스트'와 허무주의자이자 냉소적인 '메피스토텔레스'의 이야기로 인간이 가진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망, 욕망과 탐욕, 자본과 권력이 주는 철학적 의미를 전한다.

인생에 대한 회의와 성찰의 메시지를 담은 이 작품은 많은 음악가들에 의해 작곡됐는데 오페라 뿐 아니라 관현악곡과 성악, 기악곡 등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했다. 총 16편의 오페라로 만들어진 '파우스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구노의 작품이다. 작곡가 샤를 구노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낭만주의 작곡가다. 프랑스 오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음악과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다.

파우스트 박사 역에는 테너 이원종·김승직, 인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역에는 베이스 박기현·전태현이 노래하며 서울시합창단·스칼라오페라합창단이 협연한다.

존 듀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작품을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공연 '파우스트'에서 무대디자이너 호프아커와 함께 색다른 콘셉트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은 서울시오페라단은 그동안 고전 오페라는 물론 국내 창작 오페라 등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며 오페라 애호가들은 물론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국내 대표 오페라 단체로 활동해 왔다. 박준상·장일남의 '춘향전', 김동진의 '심청', 최우정의 '연서', 최근 올린 '달이 물로 걸어오듯' 등 한국 창작오페라 제작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 오페라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15만~3만원. 문의 (02) 399-1783~6/1544-1555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웃음사냥꾼을 찾아라

◆ MBC '무한도전'

토요일 오후 6시25분

최근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해 기대 이하의 웃음을 끌어내 굴욕을 당한 박명수가 제작진에게 직접 '웃음사냥꾼' 특집을 제안한다. 멤버들은 박명수의 명예 회복과 프로그램의 큰 웃음을 위해 직접 웃음사냥꾼이 돼 거리로 출동한다. SNS를 통해 즉석에서 시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 tvN '삼시세끼 어촌편2'

토·일요일 오후 9시4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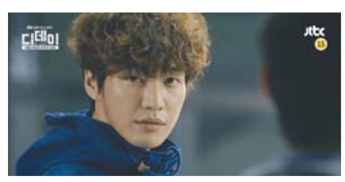
차승원·유해진·손호준이 만재도에서 다시 뭉쳤다. 차승원은 지난칠 정도로 맛있는 김치찌개를 선보인다. 유해진은 단수가 되자 기적을 보여준다. 이진욱도 게스트로 출연한다.



◆ JTBC '디데이'

금·토요일 오후 8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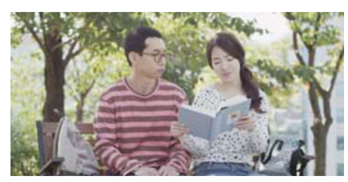
해성(김영광)은 똘미(정소미)와 함께 병원으로 돌아온다. DMAT는 우진(하석진)을 대장으로 새롭게 꾸려진다. 우진과 일섭(김상호)은 사고 현장 안전 확보를 두고 계속 갈등한다.



◆ KBS2 '드라마스페셜'

토요일 오후 11시50분

'노량진역에는 기차가 서지 않는다'가 방송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두 청춘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2014년 KBS 극본공모 우수 당선작이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31일(토)	12:10 국악한마당 13:00 동물의 왕국 14:00 헬로카봇 2 14:30 두리둥실 뭉게공항 3 15:00 15-16 여자프로농구 개막전 19:00 KBS 뉴스 19:10 다큐 공감 20:00 이어령의 백년서재 21:00 KBS 뉴스 9 21:40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22:50 청년 대한민국 황금손의 기적 23:40 콘서트 7080 24:40 KBS 뉴스	11:30 TOP 밴드 3 12:40 개그 콘서트 (재) 14:15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16: 20 슈퍼맨이 돌아왔다 18: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연예가 중계 22:35 청춘 익스프레스 23:50 드라마 스페셜 <노량진역에는 기차가 서지 않는다>	12:05 MBC 뉴스 12:15 무한도전 스페셜 13:50 2015 KBO 한국시리즈 5차전 두산:삼성 / (2안) 17:25 우리 결혼했어요 / (2안) 18:25 무한도전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23: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24:40 라디오스타 스페셜	12:00 SBS 뉴스 12:10 애인 있어요 (재) 13:20 축구 2015 FA컵 결승전, 서울:인천, 서울생중계 / (2안) 15:30 SBS 뉴스 15:40 런닝맨 (재) 16:50 토요일이 좋다 <오! 마이 베이비/주먹쥐고 소림사> 20:00 SBS 8 뉴스 20: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00 애인 있어요 23:10 그것이 알고 싶다 24:15 더 랠리스트	10:15 송곳 (재) 11:3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스페셜 13:00 JTBC 뉴스 13:20 썰전 스페셜 14:4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6:05 비정상회담 스페셜 17:40 히든싱어 4 스페셜 19:40 JTBC 뉴스룸 20:30 디데이 21:40 송곳 (1회) 23:00 히든싱어 4	11:10 응답하라 1988 시청지도서 12:3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4:20 수요미식회 (재) 15:40 콩트앤더시티 (재) 16:4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20:20 집밥 백선생 (재) 21:40 SNL 코리아 시즌6 23:30 응답하라 1988 시청지도서 (재) 24:5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2:00 잭 리처 14:40 토르:다크월드 17:00 그린랜턴:반지의 선택 19:20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 22:00 기술자들 24:20 토르:다크월드	10:10 터미네이터 2 12:50 타이탄 14:50 우주전쟁 17:10 더 코어 19:40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22: 00 백발마녀전:명월천국 24:10 우는 남자
1일(일)	12:10 전국노래자랑 13:20 스카우트 2 14: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15:00 한국인의 밥상 (재) 15:50 청년 대한민국 꿈꾸라,도전하라 17:00 KBS 뉴스 17:10 미디어 인사이드 17:40 열린음악회 19:10 도전 골든벨 20:00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쇼 21:00 KBS 뉴스 9 21:40 역사저널 그날 22:30 취재파일 K 23:10 청년 대한민국 황금손의 기적	10:30 출발 드림팀 시즌2 11:40 해피 투게더 스페셜 13: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14:25 부탁해요, 엄마 (재) 16:50 해피선데이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개그 콘서트 22:55 다큐멘터리 3일 23:55 발칙하게 고고 24:55 발칙하게 고고 (재)	10: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2:00 MBC 뉴스 12:10 출발! 비디오 여행 13:15 화려한 유혹(재) 15:35 MBC 뉴스 15:45 섹션 TV 연예통신 16: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23:15 시사매거진 2580 24:05 그녀는 예뻤다 (재)	09:30 TV 동물농장 10:50 애인 있어요 (재) 12:00 SBS 뉴스 12:10 애인 있어요 (재) 13:20 육룡이 나르샤 (재) 15:05 SBS 인기가요 제주도 특집 16:15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16: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00 SBS 8 뉴스 20: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00 애인 있어요 23:10 SBS 스페셜 24:10 더 레이서 파이널	11:00 히든싱어 4 (재) 13:00 JTBC 뉴스 13: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45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6:10 히든싱어 4 (재) 18:20 김제동의 톡투유 스페셜 19:40 JTBC 뉴스룸 20:30 송곳 (재) 21:40 송곳 23:00 김제동의 톡투유 24:20 송곳 (재)	12:2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4:10 SNL 코리아 시즌6 16:00 할매네 로봇 (재) 17:20 콩트앤더시티 (재) 18:20 수요미식회 (재) 19:40 코미디 빅리그 21:30 곽승준의 쿨까당 22:50 문제적 남자 24:2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2:10 기술자들 14:30 더 울버린 17:20 R.I.P.D.유령퇴치전담반 19:20 언노운 21:40 토르:다크월드 24: 00 기술자들	11:10 헤일로:나이트폴 13:10 백발마녀전 15:10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17:30 언스토퍼블 19:40 디스트릭트 9 22:00 초능력자 24:20 백발마녀전:명월천국

애석한 리틀전사들… “그래도 잘싸웠다”

U-17 월드컵 16강전

벨기에 못 넘고 0-2 패배
유망주들 성장에 기대감 커져
‘최진철 용병술’도 내내 화제



29일(한국시간) 칠레 라세레나의 라포르타다 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축구대회 16강전 한국과 벨기에의 경기. 이승우가 벨기에 선수들 사이에서 패스할 곳을 찾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0-2로 패해 아쉽게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201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8강을 노리던 ‘리틀 태극전사’가 벨기에에 발목이 잡혔다.

최진철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29일(한국시간) 칠레 라 세레나의 라포르타다 스타디움에서 열린 벨기에와의 16강전에서 0-2로 패했다.

한국은 전반 11분 벨기에의 요른 반캄프에게 결승골을 내줬다. 후반 22분에는 마티아스 베레트에게 추가골을 허용했다.

후반 25분 벨기에의 중앙수비수 로랑 르무안이 퇴장당하면서 한국은 수적으로 우위에 서는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후반 26분 오세훈(16·현대고)이 유도한 페널티킥을 이승우(17·바르셀로나)가 실축해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1987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 8강 진출에 도전했다. 조 1위로 16강에 오르면서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벨기에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U-17 대표 선수들에게 값진 경험이 됐다.

대표팀의 스타 플레이어였던 이승우는 이번 대회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다. 그러나 FIFA 주관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인 대표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장재원(17·울산현대고), 기니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득점을 올린 오세훈도 이번 대회에서 발견한 기대주다.

장재원은 브라질과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후반 34분에 천금 같은 결승골을 꽂았다. 오세훈은 기니와의 경기에서 후반 45분 교체 선수로 들어가 추가 시간에 골을 터트리며 장신 스트라이커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진철 감독의 용병술도 대회 내내 화제가 됐다. 브라질과의 1차전에서는 이상헌(17·울산현대고)을 투입시켜 득점의 발판을 마련했다. 기니와 2차전 때 꺼내든 ‘오세훈 카드’도 적중했다. 최진철 감독은 이번 대회로 앞으로 연령대별 대표팀을 키워나갈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았다.

2007년 한국에서 열린 U-17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부진을 겪었다. 그러나 당시 대표팀이었던 김승규(울산)·한국영(카타르SC) 등은 지금 성인 대표팀의 주축이 됐다. ‘리틀 태극전사’의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거스 히딩크 감독

‘첼시’ 새 사령탑 되나

거스 히딩크(69·네덜란드·사진)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새로운 사령탑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히딩크 감독은 28일 네덜란드 축구 매체 부트발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축구는 언제나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히딩크 감독은 최근 첼시의 후임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조제 모리뉴 감독이 이끌고 있는 첼시는 이번 시즌 3승2무5패로 20개 구단 가운데 15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모리뉴 감독의 해임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히딩크 감독 외에도 카를로 안첼로티 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언급되고 있다.

히딩크 감독은 2009년 첼시의 임시 감독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우승을 일궈냈다.

지난 6월까지 네덜란드 대표팀을 지휘한 히딩크 감독은 “최근에도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내가 곧바로 수락할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첼시행 소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히딩크 감독이 첼시 사령탑에 흥미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병호 기자

우리은행, 4년 연속 우승 도전

여자프로농구

내일 구리실내체육관서 개막전

2015-2016 KDB생명 여자프로농구가 31일 개막한다.

이번 시즌은 정규리그가 내년 3월 6일까지 이어진다. 6개 구단이 팀당 35경기씩을 치른다. 정규리그 2, 3위 팀이 벌이는 플레이오프는 3월 10일부터 3전2승제로 열린다. 챔피언결정전은 3월 16일부터 시작되며 5차전까지 갈 경우 3월 23일에 끝날 예정이다.

올해 여자프로농구의 관심사는 춘천 우리은행의 4년 연속 통합 우승 여부다. 2011-2012시즌 정규리그에서 7승33패로 꼴찌를 기록했던 우리은행은 위성우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2012-2013시즌부터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을 휩쓰는 강팀이 됐다.

우리은행은 최근 3년 연속 우승의 주역인 박혜진·임영희·이승아·양지희 등이 건재하다. 외국인 선수도 국내 무대에서 검증을 받은 쉐키나 스트릭렌·사샤 굿렛으로 진용을 짰다.

우리은행의 라이벌로는 인천 신한은행과 부천 KEB하나은행이 꼽힌다. 신한은행은 최윤아·김단비·신정자·곽주영·하은주 등 국가대표 라인업에 김연주·김규희 등 백업 선수층도 탄탄하다. 마케이샤 게이틀링·모니크 커리 등 외국인 선수도 안정적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시즌 큰 인기를 끌었던 신예 가드 신지현이 부상으로 이번 시즌 출전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강이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김정은도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새로 영입한 첼시 리의 가세도 팀 활약에 기대를 갖게 한다.

개막전은 31일 오후 3시 구리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KDB생명과 하나은행의 경기다. 올해부터 평일 경기는 작년과 같은 오후 7시 시작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 경기 시작 시간은 오후 2시로 앞당겨졌다. /장병호 기자



2015-2016 KDB생명 여자프로농구가 오는 31일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춘천 우리은행의 임영희. /연합뉴스

지동원·홍정호, 독일서 날았다

<아우크스부르크>

지-결승골·홍-첫 도움에 3-0
DFB-포칼컵 16강 진출 견인



/아우크스부르크 SNS

독일 프로축구 아우크스부르크가 포칼 16강에 진출했다. 지동원의 시즌 첫 골이자 결승골, 그리고 홍정호의 시즌 첫 도움이 팀 승리에 보탬이 됐다.

아우크스부르크는 29일(한국시간)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메이지 솔라 슈타디온에서 열린 2015-2016시즌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2라운드(32강) SC프라이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지동원은 이날 경기에서 오랜만에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다. 전반 11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터트렸다. 지난 13일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4년 1개월 만에 골 맛을 본 데 이어 소속팀에서도 이번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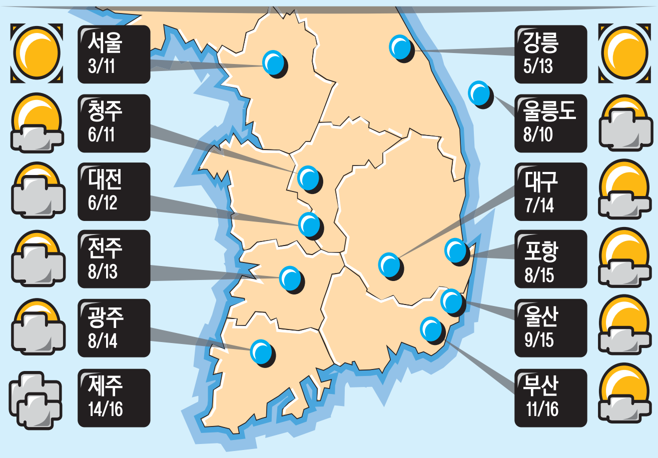
지동원과 함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홍정호는 전반 25분 알렉산더 에스바인의 추가골을 도왔다. 자신의 시즌 첫 도움이다.

/장병호 기자

날씨

10/30 금 일출시각 06:54 일몰시각 17:3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감기가능지수 |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8	6		4
	9	5				1		
			5			3		
4	8	9						
1			6		5			8
						4	1	7
		1			3			
		4				2	3	
3		6	9		2			

	5	1	4					
		2	1				9	
4	8				6	1		
		7		6				
6	3			4			2	8
				7		4		
		5	6				4	3
	9				4	8		
					3	9	5	

스도쿠 정답

2	1	3	7	9	8	6	5	4
7	9	5	3	6	4	1	8	2
6	4	8	5	2	1	3	7	9
4	8	9	2	1	7	5	6	3
1	3	7	6	4	5	9	2	8
5	6	2	8	3	9	4	1	7
8	2	1	4	5	3	7	9	6
9	7	4	1	8	6	2	3	5
3	5	6	9	7	2	8	4	1

9	5	1	4	3	7	6	8	2
7	6	2	1	8	5	3	9	4
4	8	3	9	2	6	1	7	5
2	4	7	8	6	9	5	3	1
6	3	9	5	4	1	7	2	8
5	1	8	3	7	2	4	6	9
1	7	5	6	9	8	2	4	3
3	9	6	2	5	4	8	1	7
8	2	4	7	1	3	9	5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s there any gas station around here?

Young : Excuse me! Is there any gas station around here?

Woman : Keep going straight and turn right at the next traffic light. You'll see it on your right side.

Young : That doesn't sound too difficult. Thank you for your help.

Woman : You're welcome.

이 근처에 주유소 있어요?

영 :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주유소 있어요?

여자 : 계속 직진하고 다음 신호등에서 우회전하세요. 우측에 보일 겁니다.

영 : 그리 어렵지 않겠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여자 : 별말씀을.

Quiz

Q.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dialogue?

(A) It looks like the man is lost.
(B) The woman is a stranger, too.
(C) The man is running out of gas.
(D) The woman is a counselor.

문법Point

Is there any + 명사구(장소)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 자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평서문 There is~(~가 있다)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든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Is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any다음에는 단수명사를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Is there any other question?

퀴즈해설

Q. 들려준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 남자는 길을 잃은 것 같다.
(B) 여자도 역시 초행길이다.
(C) 남자는 기름이 거의 다 바닥났다.
(D) 여자는 상담사이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아들이 어떤분야로 취업할 지 고민입니다 손재주가 뛰어나 주물공장 경험도 도움

천덕귀인 남자 90년 3월 20일 양력 4시 50분

Q 선생님 안녕 하십니까? 제가 벌어먹고 있는 지하철 입구 노점상 앞에 아침마다 메트로 신문이 있어서 공짜로 세상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특히 '사주 속으로'를 재미있게 보고 있어서 메트로 신문사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지방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취업을 해서 결혼도 해야 하는데 나이만 먹어 가고 있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구직을 하고 있으나 대학교 때 학자금 융자 받은 것 갚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 질수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A 아드님은 '나무를 타는 잔나비' 형상으로 다재다능하고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반면에 나무위에서 떨어지는 수가 있듯이 평생 인인실패(人因失敗)를 하기도 합니다. '나무를 쇳조각으로 깎아 내는 모습'이라 이것은 인격을 다듬는 형상입니다. 비결은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보면 무엇이든 이루게 되는 이치를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작든 크든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금목(金木)이 상쟁(相爭)하므로 척추나 간 계통의 질환을 주의하십시오. 현침살(懸針殺:날카로운 기물)로 손재주가 좋으니 금속공학을 전공했더라도 의류 제조업계열도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면 2015년 10월에도 취업 운이 열립니다. 사람마다 팔자가 있고 대운과 세운이 들어오게 되어 미래를 예측 할 수는 있으나 아무 노력도 없이 팔자대로 돼 가기만을 바라면 아무래도 되는 일이 없겠지요.

목표를 정해 놓고 금속공학과 관련된 어떠한 일이라도 눈높이를 낮춰 직장을 구하던지 새롭게라도 의류 일을 배우십시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아적인 생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물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 라도 한다'고 했으니 좋은 직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남이 피하고 안하는 일을 먼저 하도록 하는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생일(生日)에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형상'이므로 이사와 출장이 잦은 사주입니다. 재주가 많아 무엇이든지 따라 할 수 있으나 지속성이 없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을 주의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30일 (음 9월 18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 **48년생**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60년생**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됩니다. **72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84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소 — **49년생** 하늘이 대복을 내려주니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61년생** 도모하는 일은 빨리 시행하세요. **73년생** 어린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듭니다. **85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마세요.

호랑이 — **50년생** 남에게 보은하세요. **62년생** 회사에서 업무중에는 조금씩 양보하세요. **74년생** 결실을 얻게 됩니다. **86년생** 범에게 물려갔으나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나오는 격입니다.

토끼 — **51년생** 한가지에 매진하세요. **63년생** 계약은 혼자 하세요. **75년생** 두 가지 소원은 이루기 어렵겠습니다. **87년생** 연인과 다툼수나 이별수 있겠습니다.

용 — **52년생** 해외 여행이 꿈인데 몸이 따라 주지 않습니다. **64년생** 남쪽에 있는 사람 귀인입니다. **76년생** 생활에 고통 받습니다. **88년생** 오랜 친구가 나를 떠나게 됩니다.

뱀 — **53년생** 가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65년생** 어려움에 슬기롭게 도전합니다. 77년생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89년생**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말 — **54년생**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66년생**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78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세요. **90년생**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곧 호전됩니다.

양 — **55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습니다. **67년생** 좀더 치성을 드림이 좋겠습니다. **79년생** 변함 없이 노력한다면 우연한 기회에 좋은 운을 만날 것입니다. **91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원숭이 — **56년생** 욕심을 자제하고 그간의 일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8년생** 자존심을 버리고 남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80년생** 성공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92년생**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닭 — **57년생** 너무 서두르는 것도 길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기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81년생** 일의 성과가 태양처럼 빛납니다. **93년생** 다 된 일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개 — **58년생** 도움을 받아 좋은 거래가 성사됩니다. **70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2년생** 마음에 두던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94년생** 때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돼지 — **59년생**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따릅니다. **71년생** 원대한 것을 이루겠습니다. **83년생**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95년생** 주변사람들에게 하는 조심하세요.

"우리 문화유산 제대로 알리는 보람"



정환선
창덕궁 해설사

궁궐 해설 차 입궐하면 늘 그러하듯이 마음이 포근하고 편안하다. 그리고 해설할 때 관람객이 많으면 다소 번잡하긴 하지만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감사하고 즐겁다.

서울 도심에 자연의 숲이 오랜 기간 잘 보존되어 있는 창덕궁 후원에 들어서면 300년 넘은 고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내음이 언제나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이렇듯 후원 숲속에서 관람객과 함께 정자와 연못을 거닐며 힐링 이라는 호사를 누린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요즘 들어 관람객은 궁궐에 오시기 전 각종 매체를 통해 미리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 해설사들은 더많은 사전학습을 하고 해설에 임해야 한다.

어떤 관람객은 자세히 보충 설명을 해 주는 분도 있어 오히려 해설사가 한 수 배우는 경우도 있다.

창덕궁 문화해설사(궁궐길라잡이)는 궁궐해설을 위해서 장기간의 전문적인 궁궐 교육과 현장 실습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봉사 헌신하는 정신과 해설에 대한 열정, 보람 그리고 성실함이 없으면 안된다.

대학생·직장인·교사·은퇴자등 등 종사하는 일은 매우 다양하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 알리기에는 모두가 한마음이다. 현재 창덕궁에서 일하고 있는 문화해설사는 서울, 수도권에만 거주하는 게 아니다. 예약된 하루 자원봉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 멀리는 제주도·부산에서, 가까이는 대전·오산 등에서 자비를 들여 달려와 성실함과 열정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궁궐길라잡이는 5대 궁궐과 종묘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궁궐의 역사와 가치를 설명하며, 우리 문화유산과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존하는 자원봉사자이자 궁궐과 종묘 전문 문화유산 해설사다.

일제가 대한제국을 영구히 식민지화 하려고 궁궐을 동물원으로, 전각을 부수는 등 수많은 문화재 훼손행위를 자행 해 민족정기 말살정책을 시도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궁궐 훼손이다. 궁궐길라잡이는 이렇게 비뚤어지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알린다. 또 1997년 12월 UNESCO 세계유산위원회가 5대 궁궐 중 유일하게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룬 창덕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다는 이야기도 해설로 곁들인다.

궁궐길라잡이는 1999년 서울KYC에서 출범한 민간 주도 시민참여형 조직이다. 2013년 5월부터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우리문화숨결(www.palaceguide.or.kr)'이라는 단체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300여명이 5대 궁궐과 종묘에서 해설과 안내 활동 중이며 앙상하게 궁궐 터만 남아있던 경희궁을 "경희궁 해설로 복원합니다"라는 케치프레이즈 아래 복원에 한층 노력하고 있다.

춥고 덥고 때로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궁궐과 종묘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해설로 땀 흘리며 웃음으로 자원봉사하는 이들에게 따스한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

단통법 시대, 가계통신비 잡는 법



기자 수첩
정 문 경
<산업부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단말기유통법의 장단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은 현실적인 문제, 즉 통신비 절감이다.

단통법 아래서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미래창조과학부나 통신사들은 통신비 절감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용자 본인의 통신 소비 패턴, 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을 알아야 불필요한 통신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데이터 소비량이 적은데 굳이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몇가지 변화된 사안들만 알고 있어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먼저 '데이터중심요금제'다. 데이터중심요금제에 가입한 절반의 이용자들이 1만1000원 가량의 요금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음성통화량은 줄고, 데이터소비량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자신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되는 상품만 가입해도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 중 하나는 20%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단말기 출고가격,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겠지만 프리미엄 휴대폰의 경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 20%가 전체적인 단말기 할부금+통신서비스 요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더 많다. 예전에는 유통점에서 단말기 출고가격과 지원금, 실제 판매가격만 게시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 모든 대리점, 판매점에서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도록 약정기간에 할인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게시하고 있다. 이런 비교만 해도 전체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社 說

한국형전투기의 우직지계

<迂直之計>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난관에 빠진 한국형 전투기(KF-X)를 우리 스스로 개발하기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술이전 실패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런 계획을 밝힌데 이어 방위사업청은 '한국형항공기 개발사업단'을 연내에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기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4개 핵심기술 가운데 3개는 우리 기술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기술도 우리나라와 제3국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국방장관의 답변이었다.

상식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런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이나 기계금속 공업 등 관련 산업분야가 선진국 수준에 가깝기 때문이다. 레이다 기술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IT산업 발전수준에 비춰볼 때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동북아정세나 기술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국형 전투기는 개발돼야 한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설사 미국이 기술이전을 해준다 해도 해외수출을 제한하거나 비싼 부품을 무조건 구매하라고 요구하는 등 불리한 조건이 붙는다. 그러느니 어렵고 먼 과정이지만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자의 우직지계(迂直之計) 병법처럼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또 그렇게 익힌 기술이야말로 확실한 우리 기술이 된다.

그렇지만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일의 순서가 잘못돼 있거나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냉철하고 정확하게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 그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한국형전투기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단계를 밟아 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수입·국내산 삼겹살 구별법

소비자 119

회식 단골 메뉴인 삼겹살을 냉동육인지 냉장육인지 구분할 순 없을까.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은 전문가들도 쉽지 않지만 수입산이 장거리 운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것을 감안할 때 냉장·냉동만 가릴 수 있어도 원산지를 가늠할 수 있다.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면서 일반 식당에서도 국내산, 네덜란드산 등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지만 이를 100% 신뢰하기는 무리다. 육류 유통업자들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서 다.돼지고기는 소고기에 비해 숙성기간이 비교적 짧다. 때문에 단시간에 이동을 해야 냉장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입육은 장거리 수송을 통해 유통돼 냉동육 비중이 높다.

수입육은 대부분이 냉동육으로 국내산에 비해 삼겹살 끝부분이 잘려서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일명 오돌뼈라 불리는 늑연골이 없는 것을 수입육의 특징으로 꼽기도 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는 늑연골이 포함된 수입육도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 이를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입육은 기계작업으로 인해 칼집이 없이 깨끗한 반면 국내산은 늑골 제거 작업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칼집이 있다. 국내산의 경우 현장에서 등심부위 바로 아래까지 잘라 폭이 넓은 편이나 수입육은 폭이 좁다.

지방과 살의 간격도 약간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국내산은 지방층과 살의 구분이 명확하지만 수입육은 구분이 쉽지 않다. 색상은 국내산이 약간 분홍빛을 내면서 광택이 있는 홍색인 반면에 수입육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붉은색을 띤다. 국내산 삼겹살은 구웠을때 지방이 맑은 액체상태로 분리되지만 수입삼겹살은 지방이 흰색으로 응고된다. 고기의 썰어진 단면이 깨끗하지 못하면 수입산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냉동하지 않고 잘랐을 때 표면이 매끈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국내산일 가능성이 높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인 사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 경영기획실장 이병철 △ 우편사업단장 박종석 △ 전남지방우정청장 김선옥 △ 전북지방우정청장 김병수
◇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승진 △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실 윤종선 △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송경희
◇ 조달청 ▷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 인천지방조달청장 강경훈 ▷ 과장 전보 △ 운영지원과장 류재일 △ 청장실 비서관 임중식 ▷ 과장 승진 △ 창조행정담당관 박상철
◇ 단양군 ▷ 6급 전보 △ 단양읍 부읍장 김태식 △ 생활복지팀장 이교선 ▷ 7급 승진 △ 기획감사실 김인상 △ 기획감사실 이동훈 △ 문화관광과 임행교 △ 산림녹지과 전용재

부 고

▲ 김원복씨 별세, 김태근(대신증권 IB사업추진팀 이사)씨 부친상, 강병호(자영업)·박순성(자영업)씨 장인상 = 28일 오후 10시, 부천 석왕사 장례식장 1층, 발인 30일 오전 10시 ☎ 032-663-7777

▲김옥휘씨 별세, 김재운(사빅 코리아 전무)·은주씨 모친상, 박재구(BGF리테일 사장)씨 장모상 =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1일 오전 5시 50분 ☎02-3779-1857, 010-4726-7860

▲ 문낙녀씨 별세, 서남종(KB국민은행 재무기획부장)·영철(사업)씨 모친상 = 29일 오전,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31일 오전 10시 ☎ 063-855-1734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편 집 국 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서울특별시

I.SEOUL.U

나와 너의 서울

시민이 만든 서울브랜드,
시민과 함께 키워가겠습니다

134,747건의 사전투표,
10월 28일 현장 시민투표와 전문가 투표를 거쳐
I.SEOUL.U 가 새로운 서울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나와 너의 서울
서울을 대표하고, 시민과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키워가겠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 서울이 있습니다"

처음엔 좀 낯설어도 반갑게 맞아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seoulbrand.go.kr 서울브랜드